춘천 지하도상가·요선동·새명동·옥천동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이야기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한영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조운동네 좋은소식〉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2023년이었습니다.
조운위크 시리즈, 상상 시리즈, 틈새 콘서트 등 조운동네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성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의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내년에도 쉬지 않고 나아가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한영호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5가지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중심시가지형'에 해당하며, 찾아가서 머무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권역인 조운동네(요선동·새명동·옥천동·춘천지하도상가)는 춘천시의 주요 기능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명동상권과 전통시장, 관공서, 학교, 은행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 혹은 기반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은 주로 도시재생과에서 이끌어 가고, 그 외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현장센터에서 운영합니다. 2023년에는 '조운위크', '틈새콘서트', '상상아트스쿨', '상상 한 여름/겨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 2주년을 기념한 입주 작가 단체전이 있었고, 권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민공모사업도 운영되었습니다. 소공연장이 완공되어 춘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 새로이 하나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성수동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 동네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24년에는 '조운위크 시리즈, 상상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대형 축제 및 상권 연계 소규모 행사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격월로 발행되는 〈조운동네 좋은소식〉으로 센터 소식 확인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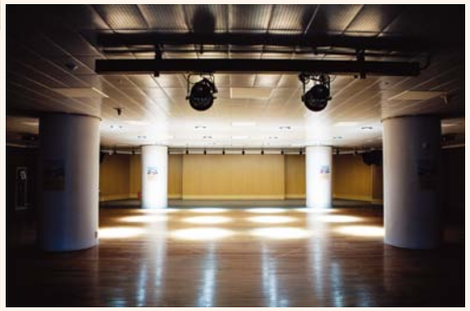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람들

안녕하세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예은입니다! 이렇게 또 계절이 훌쩍 흘러 2023년의 끝자락에서 인사드리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바쁘고 힘차게 달려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네'에 가까워진 한 해였어요. 저희 사업을 위해 같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연시되시길 바라며 2024년에도 〈조운동네 좋은 소식〉과 함께해주세요.







조운동네 문화공간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공간을 소개합니다. 요선동 조운웰컴센터, 지하도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새명동 상상어울림센터입니다. 조운웰컴센터는 1층 전시공간, 2층 주민커뮤니티공간, 지하 공연예술공간으로 운영하며 대관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언더그라운드는 갤러리 상상언더, 댄스·밴드·연극 연습실, 소공연장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높은 접근성 덕분에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어울림센터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공유스튜디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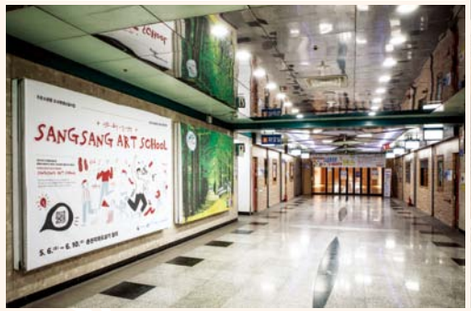
머 무 르 고 싶 은 **원 도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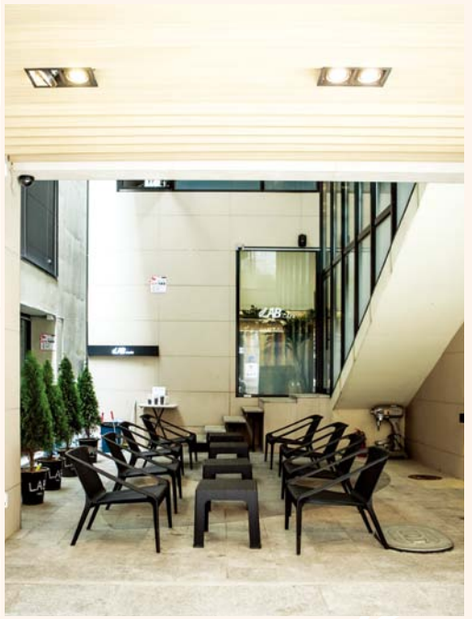




문 화 가 숨 쉬 는 **조 운 동 네**











1분기

||

1월에서 3월

* 전시 '반려동물 사진전'
* 1월 월례회의
* 전시 '교육기부의 한 획을 긋다'
* 2월 월례회의
* 전시 '19호실에 머무는 법'
* 전시 'Pro;file展'
* 3월 월례회의
* 소공연장 완공

1. 16. ~ 1. 31.

전시 **‘반려동물 사진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춘천 반려동물산업과의
‘반려동물 사진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1. 18.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공실 모집, 소공연장 조성, 《조운동네
좋은소식》, 주민공모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 6. ~ 2. 12.



전시 ‘교육기부의 한 획을 긋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대교단 강원본부의 ‘교육기부의 한 획을 긋다’ 전시가 진행되었다.



2. 15.



월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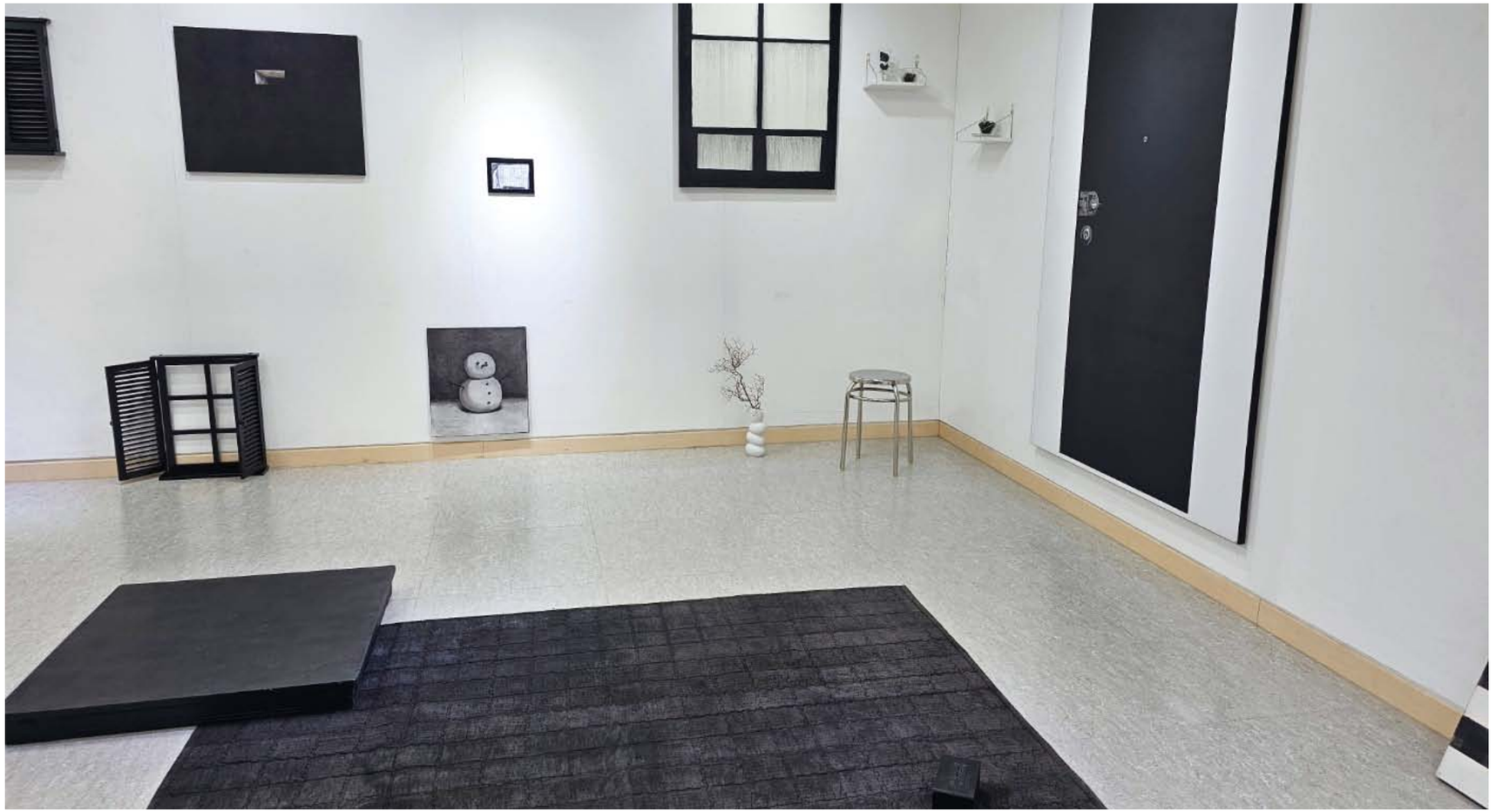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2023 상상 어울림 페스티벌’, 공실 모집, 소공연장 조성, 《조운동네 좋은소식》, 주민공모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2. 18. ~ 2. 27.

전시 ‘19호실에 머무는 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이내, 정찬민, 한동국 작가의 단체전 ‘19호실에 머무는 법’ 전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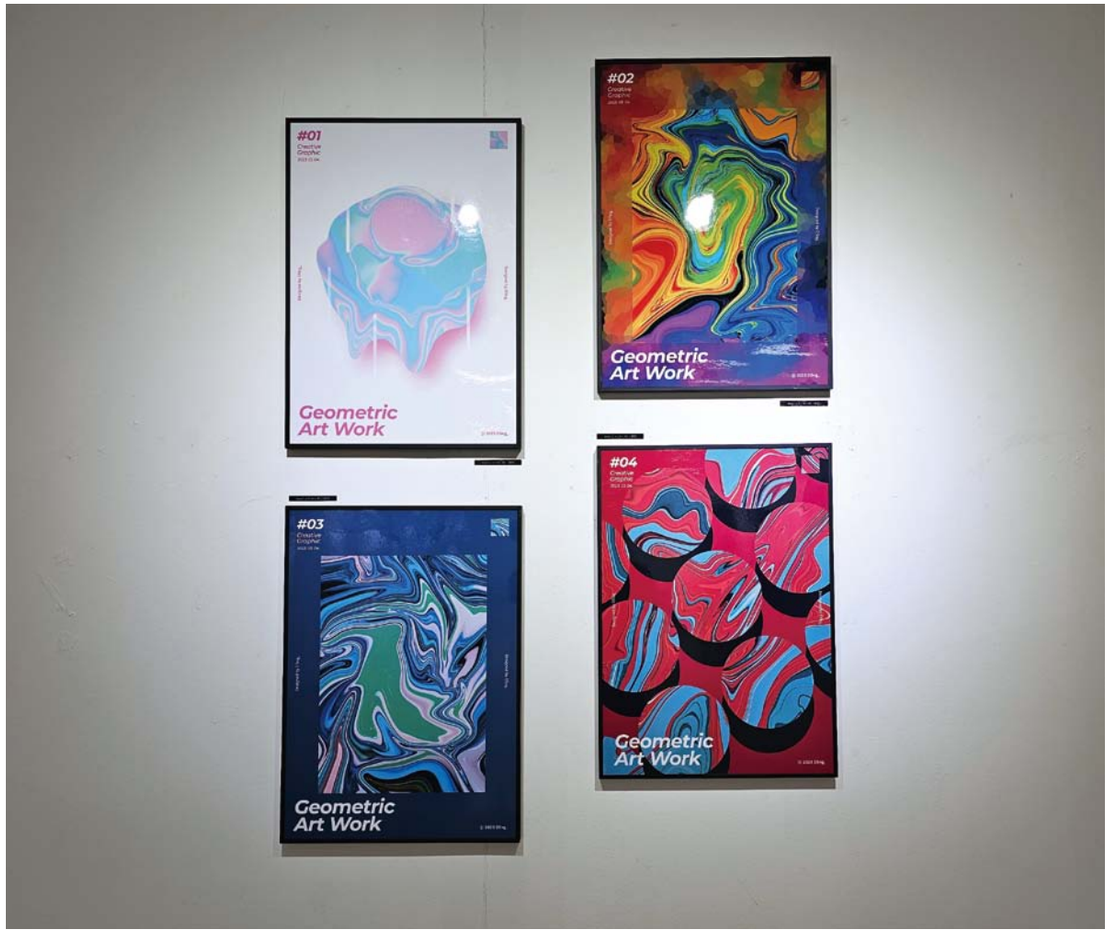


3. 4. ~ 3. 11.

전시 ‘Pro;file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아트플랫폼 공장의 단체전 ‘Pro;file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이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갤러리 상상언더 두번째 전시예요! 작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춘천 청년 예술가들과 단체전을 여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셨나요? 모두 창작단체 공장 회원인가요?

길창인 그건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고정 멤버로 운영했는데,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람도 고이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별로 멤버가 변동하는 체제로 바꾸었죠. 고정 모임에 대한 부담도 줄고, 네트워크도 오히려 확대됐어요. 이번 전시는 직접 홍보와 지인 소개로 섭외했어요. 한 분을 제외하곤 다 처음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이예은 창작단체 공장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길창인 한마디로 ‘춘천 청년 작가 플랫폼’이에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장차 춘천 기념품을 제작하는 로컬아트편집숍이나 아티스트 에이전시, 오픈 스튜디오,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콘텐츠를 조직화해 사업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예은 단체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느낀 점은요?

길창인 개인전은 디자인, 연출 등 표현에서 자유로워요. 반면 단체전은 포스터부터 애를 먹었어요.(웃음) 조화롭게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일정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다들 배려해주시느라 그런 건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번엔 창작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해보고 싶어요. 좋았던 점은 오프닝 퍼포먼스와 작가 한 명 한 명이 도슨트를 하는 개관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다채로운 기획이었습니다.

이예은 작가님의 개인전인 회귀, 환원, 환상 3부작의 나머지 2부작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올해의 목표와 계획도 궁금합니다.

길창인 2부는 가능하면 올해 하고 싶고, 3부는 미정이지만 어쩌면 단체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단체전을 진행해보고 싶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기획자로서요.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8주짜리 프로젝트로 만들고, 주제를 명확하게 해보려고요. ‘춘천’에 대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빠르면 여름에요. 지원금 서류 제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3. 15.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3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위크 봄', 하하랜드 '길거리 노래방', 2023 상상 어울림 페스티벌, 〈조운동네 좋은소식〉, 입주단체 간담회, 소공연장 조성, 주민공모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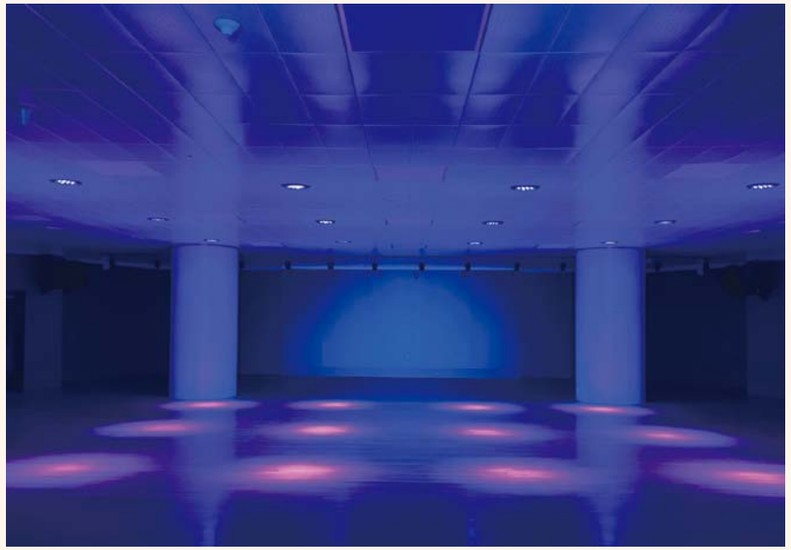
3. 31.

소공연장 완공

지하도상가 중앙로 끝자락, 춘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인 소공연장이 조성되었다.







대를 잇는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자부심, 정직, 인내심으로 가게를 지킵니다!”



반세기인 50년 동안 이름도 장소도 그대로 있는 가게, 독일제빵

장명희
033-254-3446 | 중앙로 39, 1층

56년, 많은 나이를 먹은 독일빵집의 문을 열면 유명 프랜차이즈 상점과는 사뭇 다른 첫 인상이 느껴진다. 유행을 따라가는 각종 빵은 없다. 그 대신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채웠을 법한 빵들과 추억의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의 바통을 이곳을 지키는 고운 얼굴이 있으니, 바로 장명희 사장님이다.

시집온 지 36년이 되었다는 장명희 사장님. 결혼했을 때 이미 시아버님은 제빵 하나로 춘천과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인이셨다. 50년도 훨씬 전인데 흔히 ‘센베’라고 불리는 전병과 호두과자를 직접 구웠고, 화과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마카롱이 있었다. 계란흰자와 설탕을 넣는 머랭에 땅콩을 섞어 바삭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마카롱이다. 한때 시아버님의 마카롱을 현대식으로 만들어보다 맘에 차지 않아 그만두었다. 빵맛이 소문나 강원대학교 기숙사에까지 납품해야 하니 일요일 없이 일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명동과 가까워 학생들의 미팅 장소로도 인기가 많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춘천도 택지분양으로 외곽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도심 인구가 분산되었다. 새로운 상권이 생기고 도심은 점점 비워졌다. 어느덧 동네마다 유명 빵집 체인점이 들어섰고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다.

오래된 빵집이라는 명분만으로 유지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빵에 대한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힘으로 돌파구를 찾아 정성 들여 낳은 제품이 있으니 지금 손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제호두파이다. 몸에 좋은 호두를 듬뿍 넣고 두툼하게 만들어 단맛과 고소한 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다. 전국의 호두파이 애호가에게 꾸준히 입소문이 퍼져 빵집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효자 아이템이다.

침체된 지하도상가와 명동상가 근처에 야시장이나 먹거리 테마 거리를 만들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길이 빨리 열려야 한다는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한다.

손님들이 자꾸 찾는 맘모스빵을 다시 시작해 볼까? 폭신한 빵에 크림이 알차게 들어 크기뿐 아니라 맛도 인기도 맘모스였던 빵이었다.

“시대에 따라 빨리 변하잖아요. 저희는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성실하게 만드는 거죠. 빵도 그냥 성실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걷던 길을 지키는 터널기름집

조진호
033-254-4169 | 서부대성로48번길 6, 1층

요선동 골목 안에 그 옛날부터 그대로 그곳에 있었을 법한 터널기름집. 그곳을 지키는 젊은 조진호 사장님이 있다. 여기서 그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연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부모님은 배고픈 시절 제법 괜찮았던 제면가게로 시작, 국수로 끼니를 때우던 때를 지나서 아버지 대에 기름집으로 업종을 바꾸었다. 그렇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지금의 사장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크면서는 생각보다 가게 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다. 춘천을 떠나 객지 생활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 가게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돌아올 곳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에 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2015년 고향에 정착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배웠고 2017년 아버지께 넘겨받아 기름집 운영 7년 차다. 들기름과 참기름을 짜고 고춧가루와 메줏가루 그리고 쌀가루도 빻는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이 줄어든 요즘, 누가 깨를 사서 씻은 뒤 말려 기름을 짜러 오겠으며 마른 홍고추를 빻아 고운 빛깔의 고춧가루를 내어 김치 만드는 수고를 할까. 조 사장님은 이런 흐름에 맞춰 식당이나 음식 제조 공장 등에 대량 납품하고 있다. 아파트를 돌며 기름 한 병이라도 팔아볼 각오로 일하며 온라인 판매도 관심을 두고 있다.

손님이 뜸한 시간, 가게를 청소하거나 온라인 사업을 구상할라치면 주위 가게에서 손짓을 한다. 밥도 먹자고 부르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장님에게 도와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 털털한 성격이라 나이와 관계없이 주위 상인들과 잘 어울리는 까닭이다. "장사가 안 되면 같이 모여 푸념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는 거죠. 장사가 잘되면 또 잘 되어서 바쁘면 좋은 거고요."장사 원칙은 간단하다.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정직한 재료로 깨끗하게 만든다, 이윤이 줄어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 먹는 것을 속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사라지면 장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가끔 가게를 둘러보고 가시는 아버지를 뵙는 날, 그의 가슴엔 다시 한번 터널기름집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훅~ 치고 들어온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7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운동네 문화거점 시설로 춘천 문화도시를 보고 느끼고 읽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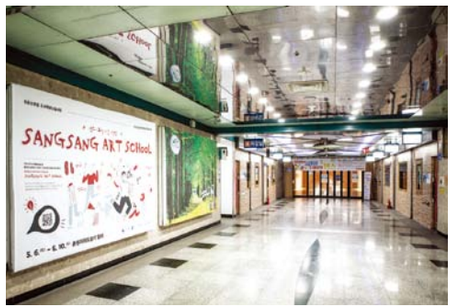
도시재생은 도시 개발처럼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껏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켜갈 만한 가치를 보존해나감을 이상으로 추구한다. 재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려낸다는 뜻으로 읽히며, 쓸모없던 것을 쓸모 있게 만든다는 의미를 내포해 새로운 가치를 입혀 보존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며 도시 개발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는 부의 편재와 대물림 현상이 심화했다.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성장구조로 변화하며 도시 간에는 성장 지역과 낙후 지역이 생겨났다.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대부분 임야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이며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 시설은 애당초 들어설 수 없었고, 다만 신산업 소재의 연구소나 공장이 몇 개 세워졌을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그나마 도시에 활력을 주는 도시 변화의 마중물과 같았다.

춘천시에서는 우두동 '돌봄으로 활력 찾는 50호 마을'이라는 예비사업을 포함하여 5곳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근화·소양 뉴딜사업인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를 시작으로 약사·명동 뉴딜사업인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교동·소양 뉴딜사업인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조운·소양 뉴딜사업인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를 진행하고 있다.

춘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단어(key word)는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culture)'이며, 이를 중심으로 생활·경제·역사·청년 재생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사람·역사·문화·장소를 재생의 핵심 가치로 활용하되 그 지역(장소)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고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해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조운·소양 뉴딜사업인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를 이루려는 구체적 사업으로 1)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 시청광장 문화활성화 사업 3)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4) 지하광장 상상공원 조성사업 5) 중앙로 상상문화거리 조성사업 6) 스마트교통시스템 운영사업 7) 조운웰컴센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중이다.

'조운동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문화가 숨 쉬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상상'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발현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머릿속에 갈무리되어 남는다. 네 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조운동네는 현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할 탄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 문화정책에도 들어맞게 사업을 진행할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마임축제 개설 무대를 조운동네에 마련하였는데, 이는 '조운동네'에서 꾸준하게 추진했던 노력의 결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대표로 하는 재생사업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조운동네'에서 진행하는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 가운데 시청광장 문화 활성화 사업은 상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운동네'에 주민과 관광객이 모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마임, 연극, 인형극 등 춘천의 3대 고유문화 콘텐츠와 접목한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재생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리마켓을 요선동, 지하도상가, 새명동 중심에 있는 시청광장을 활용함으로써 춘천 원도심 브랜딩 제고와 홍보를 겸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내고 있다.

'조운 웰컴센터 조성사업'도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웰컴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이면서 재생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주민협의체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거나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공간이다. 지하 1층에 자리한 마을극장에서는 영화 관련 워크숍이나 영화 교실을 운영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면 누구나 대관 신청을 하면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추진 중인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주민(상인)협의체 결성이 이루어지면 이들 간의 커뮤니티는 물론 다양한 사업 수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로 지하도상가에 '상상언더그라운드'를 조성한 일은 문화예술로 지하도상가의 변화를 꾀하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조운동네'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다. 슬럼화한 지하도상가를 개조하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사계절 쾌적한 도심 속 지하정원으로 변신한 지하도 광장인 '상상공원'과 함께 '조운동네'의 대표적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상상공원에서는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상언더그라운드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은 물론 예술작품을 내내 감상할 수 있어 춘천을 대표하는 전천후 생활문화예술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8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분기

4월에서 6월

* 《조운동네 좋은소식》 6호 발행
* 4월 월례회의
* 조운위크 봄
* 전시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
* 상상 아트 스쿨
* 5월 월례회의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협약식
* 전시 '나도 스마트폰 예술사진가'
* 성동구 일대 선진지 견학
* 2023 조운·소양동 도시재생대학
* 《조운동네 좋은소식》 7호 발행
* 전시 '제8회 호반윤슬art展'
* 주민공모사업
* 6월 월례회의
* 틈새콘서트

4. 15.







《조운동네 좋은소식》6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6호를 발행하였다.

4. 19.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4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위크 봄', 소규모 버스킹 프로그램, 〈조운동네 좋은소식〉, 상상 아트 스쿨, 갤러리 상상언더 2주년 전시, 하하랜드 '길거리 노래방', 지하도상가 소규모 문화행사,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상인 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소상공인 미디어 교육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4. 22. ~ 4. 23.

조운위크 봄

'조운위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치어리딩, 드로잉쇼, 마임 등 다채로운 공연과 만들기 체험, 어린이 마켓, 중고 서적 교환,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5. 1. ~ 5. 26.

전시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 2주년 기념 입주작가 단체전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갤러리 상상언더 2주년 개관 기념 전시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에 함께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작가 소개와 작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려요.

고은미 민화 작가 고은미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우리의 그림 민화를 만나 행복한 길을 가고 있네요. 법고창신하며 현대화에 늘 고민하면서 작업합니다.

길창인 춘천에서 사진 찍고 있는 길창인입니다. 현재는 사진으로 패턴을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며 시작한 작업으로, 사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문윤정 안녕하세요. 문윤정입니다. 천에다 야생화 위주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소창과 삼베(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소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림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40여 년간 작품활동 중입니다. 현재 후학지도(북부노인회관, 후평3동 주민센터)에서 동양화 지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군집이라는 키워드로 작업하고 있는 윤현정입니다. 개인의 군집부터 사회의 군집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숲의 요소가 되는 군집의 모습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숙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어릴 적 장래 희망이 화가였어요. 중년 여인이 된 제모습에서 어릴 적 꿈많은 소녀의 감성을 작품 속 이미지와 함께 조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아 작품 소개 부탁드려요.

고은미 전통을 기반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우리의 전통 그림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길창인 작품은 모두 사진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순 복제인 사진 기술이 '어떻게 예술로 존재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작업으로 프렉탈처럼 보이는 패턴은 본질을 나타냅니다.

문윤정 꽃과 나비를 통해 자연을 둘러보고 멸종 위기 2급 야생식물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영림 이번 전시에서는 현실과 이상향(유토피아)에 대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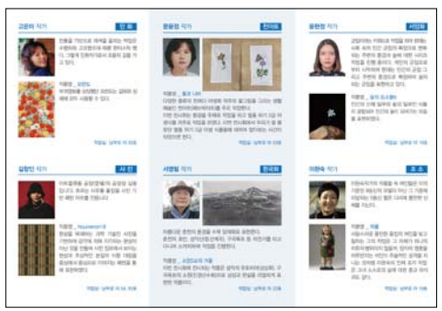
윤현정 보는 그대로 인간과 숲의 결합을 나타내는데요. 밀집된 사회의 인간 군집들이 포화 되며 결국에는 주변의 풍경인 숲까지 침범하여 더이상 숲이 아닌 인간의 숲이 되는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완숙 아름다운 꽃 한 다발과 소지품이 든 가방을 들고 막 외출하려 하는 중년 여인의 모습에서의 들뜬 모습과 양 볼이 발그레한 표현으로 소녀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성현아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은미 민화를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하며 여유가 없어서 개인전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12월 즈음에 첫 개인전을 소소하게 준비중입니다.

길창인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예술 문화를 만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윤정 지하도상가 상인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만의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같이 전시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영림 앞으로의 작품은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의 미래 이상향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에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현정 지금의 '숲의 요소들' 시리즈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된 크루에서 친구들과 단체전을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완숙 나의 소소한 일상을 진솔하게 작품 속에 담았으며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작품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5. 6. ~ 6. 10.





상상 아트 스쿨

매주 토요일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트 스쿨'이 진행되었다. 춘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보컬·영상 교육을 운영하였고, 마지막 날인 6월 10일에는 결과발표회가 이루어졌다.



5. 18.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5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조운동네 좋은소식》, 틈새콘서트, 상상 아트 스쿨, 청소년 수련관 업무협약, 갤러리 상상언더 2부년 전시, 지하상가 소규모 문화행사, 도시재생대학, 권역주민 문화 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소상공인 미디어 교육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5. 25.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협약식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이용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6. 1. ~ 6. 15.

전시
‘나도 스마트폰 예술사진가’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단체전 ‘나도 스마트폰 예술사진가’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전시회를 진행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손준호 문화도시 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춘천 시민의 일상적인 스마트폰 사진에서 예술&작품 사진에 도전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2023 일당백 리턴즈’ 프로젝트입니다.

성현아 작가님 외에도 열 명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어떻게 모이게 되었나요?

손준호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셀카, 풍경, 연인 등 평범한 스마트폰 사진에서부터 예술사진, 작품사진에 도전하고 싶은 '딴짓러'를 선착순 모집하였습니다.

성현아 단체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손준호 처음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작품성이 있는 작품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진, 나쁜 사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사진을 못 찍는 사람이 없고 나쁜 사진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좀 더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면 모두가 예술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일부 해상도 낮은 스마트폰 사진 작품은 그림 같다는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성현아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손준호 셀카탈출에서 예술작품으로 참여자 개개인의 개성 있는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는 모두가 예술인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찍고, 추억을 담고, 기록하여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사진은 그냥 모여 있는 0, 1, 디지털 데이터일 뿐, 진정한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좋은 사진은 인화한 사진, 잘 뺀 사진입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사진 중에 1~2장이라도 인화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성현아 앞으로의 작품활동 계획이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손준호 이번 '나도 스마트폰 예술사진가' 전시기획을 모티브로 하여 춘천의 낭만을 현재 배우고 있는 서양화와 사진을 융합하여 작품화 및 전시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소소한 '스마트폰&사진'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6. 2.

성동구 일대 선진지 견학

성수동 '대림창고', 송정동 '1유로 프로젝트' 등 성동구 일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6. 14. ~ 8. 9.

2023 조운·소양동 도시재생대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 동네만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등 조합 설립 교육 기반 도시재생대학이 진행되었다.





6. 15.

《조운동네 좋은소식》7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7호를 발행하였다.











전시
‘제8회 호반윤슬art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호반윤슬art의 단체전
‘제8회 호반윤슬art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제8회 ‘호반윤슬art전’ 전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또한 ‘호반윤슬'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손준호 2018년부터 서양화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취미활동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2019년도에 첫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호반윤슬art’ 동호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회원들은 미술 공모전에 참여하고 유아미술지도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전문 서양화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호반’은 춘천을 대표하는 대명사죠. ‘윤슬’은 순수 우리말로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문화도시 춘천에서 윤슬처럼 잔잔한 예술혼을 일으키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예술인이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그림 그리는 것, 누구나 예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모든 회원이 ‘봄바람동호회(춘천시민협의체, 시민활동)’에 가입했습니다.

성현아 ‘호반윤슬art전’ 준비 작업 기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손준호 참여 작가에 따라 제작 기간은 조금씩 달라요. 짧으면 1주, 아주 길면 3개월 이상도 걸려요. 서로 추구하는 화풍이 다르고 미술 공모전에 참여한 수상 작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성현아 ‘호반윤슬art전’을 7회 진행하였는데 갤러리 상상언더에서의 전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갤러리 상상언더를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었나요?

손준호 ‘호반윤슬art전’은 전문화가로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연 2회 전시회를 목표하는데 올해는 전시계획이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전시장 대관 예약이 마감되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갤러리 상상언더’에 대해 알게 되었

습니다. 이곳 '갤러리 상상언더'는 동호회 또는 개인전 하기에 딱 알맞은 규모이고, 다른 대관 장소와는 다르게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 관람객이 전문 전시장보다 훨씬 많아 전시작가로서 흥이 나네요! 2024년에도 이곳에서 전시하고 싶네요!

성현아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손준호 '색에 차오르다!'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내면의 색을 형상화한 풍경과 정물, 비구상 작품을 전시했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여덟 번의 전시를 통하여 점점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을 통하여 일반 시민에게 서양화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 그림에 관심 있는 분은 우리 동호회에 가입하길 원합니다.

성현아 마지막으로 작가님들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영순 새로운 것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늘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나름의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김종인 유화 20~30호 정도 크기 작품을 매년 4~5점씩 '독도를 지킨 사람', '독도를 지킬 사람' 등의 주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전달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관 그림으로 소통하고, 힐링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손준호 사진작품 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그림처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그림! 그림과 사진을 융합한 춘천의 낭만을 작품화한 'HARMONY'라는 주제로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양 아직은 발을 내딛는 단계여서요,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추구하고 싶은 길'을 찾아, 한 발씩 내딛으며, 의미 있는 작품들을 완성해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유영아 내 안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한 그림 놀이가 주위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림을 통하여 더 많은 분에게 위로와 행복을 나누는 서정적인 작가이고 싶습니다.

장미자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동호회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작가가 되어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전대경 호반의 도시 봄내 춘천의 정취가 묻어나는 경치를 계절별로 화폭에 담아 춘천의 사계를 풀어내고 싶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6. 16. ~ 8. 27.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3팀의 프로그램 '조운하모니 요선우쿨렐레', '천아트, 꽃차 강의', '요선악기장터'가 진행되었다.







6. 22.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6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위크 여름, 틈새콘서트, 상상 한 여름, 상상 그 이상의 댄스, 기공체조, 치매 조기검진 프로그램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6. 27. ~ 8. 31.

틈새콘서트

점심시간을 활용한 힐링 버스킹, 틈새콘서트가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되었다.















조운동네 부부열전



만남부터 오늘까지 한마음 부부의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불개미옷수선 이경한 & 유정애
중앙로1가 91 지하도상가, 도청로 다-60 | 033-254-8482

춘천 지하도상가 다열에 있는 불개미옷수선집. 그 이름만으로도 성실과 근면으로 무장한 이들의 가게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열네 살 때부터 양복 기술을 배운 남자와 일찍이 양복점에서 일하던 부인이 만나서 수선집을 운영하니 그 솜씨 또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 양복 기술이 좋던 남자는 미국이 수선비가 비싸니 미국 가서 돈을 벌어오자는 친구와 손잡고 한국을 떠났다. 덜컥 가보니 수선은 양복 만드는 것과 조금 달랐지만, 뉴욕 맨해튼에서 4년을 일하고 돌아왔다. 닭갈비 식당을 하던 동생이 식당 운영을 권유했지만, 평생 옷을 만져서인지 내키지 않았다. 다른 일을 몇 년 기웃거리다가 아는 후배로부터 지하도상가 수선집을 이어받아 시작한 것이 올해로 18년째다. 수선은 고객의 입맛에 맞게 기존의 옷을 고치는 일이라 까다로운 점이 많다. 초기에는 막무가내인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건강도 나빠졌다. 그러다 차차 고객과 소통이 잘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노련미가 점점 더해지면서 자동으로 단골손님이 늘어 꼼꼼하고 피곤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수선집이 되었다.

오래전 요선동에 나란히 있던 두 양복점의 남녀가 20대에 만나 40년을 넘게 살아왔다. 남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부인은 한국에 남아 두 아이를 혼자 힘들게 길렀다. 부인은 남편이 지쳤을 땐 그늘이 되어주고 힘들어할 땐 기댈 수 있는 나무처럼 긴 시간 옆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있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조각이다. 가게에 걸린 조각도 남편의 작품이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것으로 만드는 것’을 수선의 모토로 생각하는 남편과 아침마다 도시락을 준비해 남편과 함께 일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가게는 오늘도 수선 중이다.

맛있는 1층과 멋있는 2층 부부의
“세심한 남자와 야무진 여자가 잘 만났습니다.”

진미식당 + 중앙표구사 이경자 & 김성우
서부대성로44번길 22-1 | 1층 진미식당 033-244-4144,
2층 중앙표구사 033-256-1128

유명 패션업체에서 일하던 멋스럽고 똑부러진 여자와 인사동 표구사의 솜씨 좋고 단정한 남자는 소개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다. 이 부부, 강산이 세 번도 넘게 변했을 시간을 함께 보냈고, 지금도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함께 있다. 심지어 일도 같은 공간 1, 2층에서 하니 바늘과 실이 따로 없다.

남편은 평생 표구 일을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사동에서 일을 배워 오랫동안 한길을 걸었다. 유명 작가의 작품과 청와대에 들어가는 작품까지 표구하는 등 꽤 괜찮은 경력을 쌓고 춘천에 내려와 요선동에서 표구사를 운영했다. 예술작품을 다루는 일이 세심하고 꼼꼼한 작업인지라 일할 때는 조금 까칠하다 싶은 성격이 나온다. 일 때문에 성격이 바뀌었는지, 그런 성격 탓에 표구 일과 잘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아내는 결혼 후 흔히 그렇듯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 살림을 도맡아 했다. 표구사 매출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 근처에 식당을 열었다. 주위 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식당은 꽤 잘되었다. 남편의 건강과 사업이 함께 악화되었을 때는 아내가 그 몫을 대신했다. 이제 이 부부, 어엿한 건물주인이 되어 따로 또 같이 일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주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1층 식당에서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그 2층에서는 평생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일해온 남편이 표구사를 운영한다. 바쁜 시간에는 2층 사장님이 1층 도우미가 되기도 한다. 서로 더 잘되도록 도와주고 힘써주어 내조·외조가 따로 없는 부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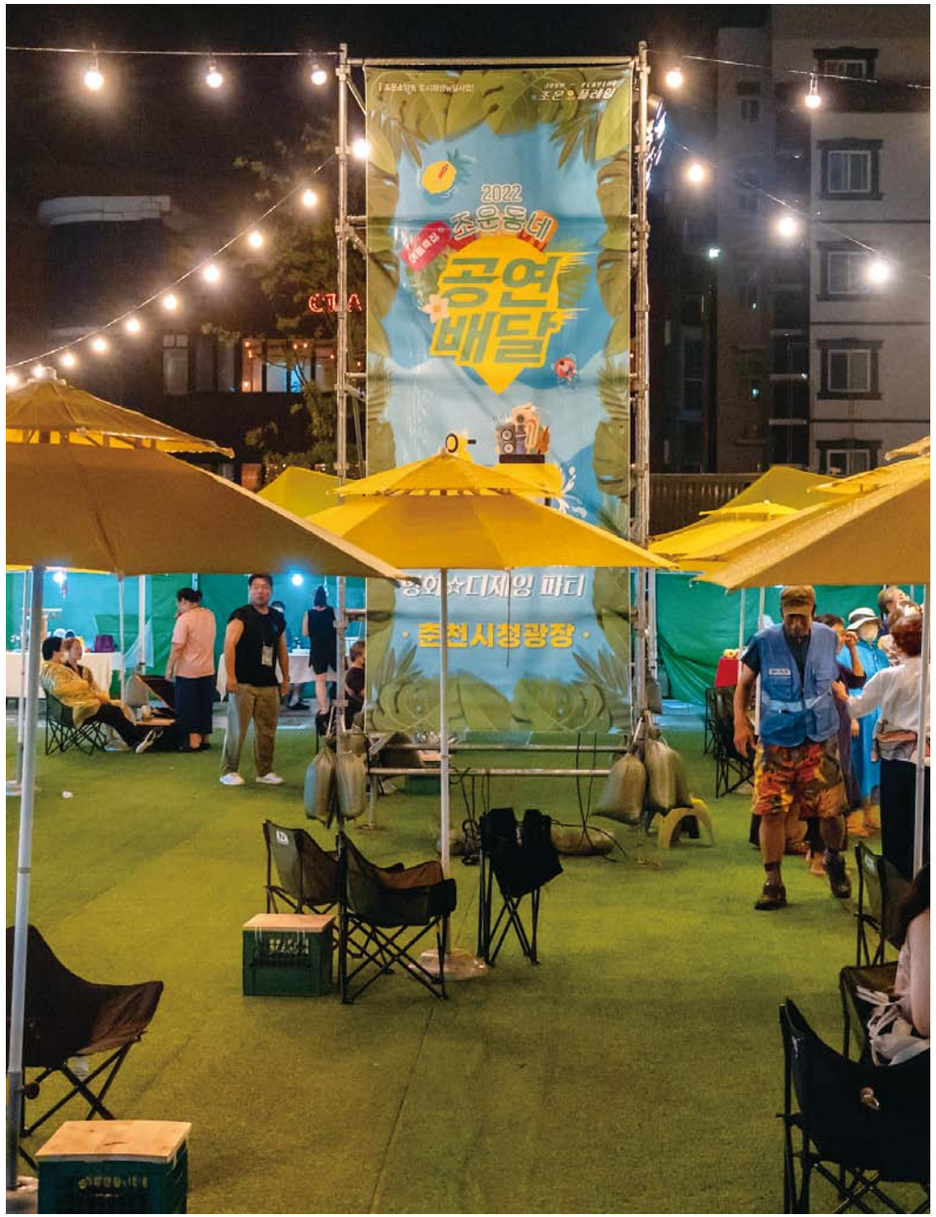


문학을 사랑하는 친구 같은 부부의 “조급하면 커피가 안 되더라고요, 인생도 그래요.”

진미식당 + 중앙표구사 이경자 & 김성우
서부대성로44번길 22-1 | 1층 진미식당 033-244-4144, 2층 중앙표구사 033-256-1128

지하도상가를 지나노라면 여느 카페와 다른 특별한 향기로 발길이 머무는 곳이 있다.
드립커피를 느리게, 느리게 내리고 있는 백발 주인장의 모습에서, 똑똑 떨어지는 커피 방울에 왠지 모를 특별한 인생의 향이 더해졌을 것만 같은 카페다.
하비커피는 사랑하는 손녀가 아기 때 할아버지를 ‘하비, 하비’ 하며 부르고 따라서 그 예쁜 모습이 좋아 카페 이름으로 정했다고 한다.
글을 쓰는 아내와 시를 사랑하는 남편이 편지로 만나 평생을 함께했고 지금은 같이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커피를 내리는 틈틈이 시를 쓰는 남편과 그의 작품을 가장 사랑하는 1순위 애독자인 부인은 창창한 20대에 만나 사랑했고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다.
부유하게 자란 철원의 문학청년 남편은 젊은 시절 의욕적으로 출판일에 뛰어들었고 지역환경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크게 소득이 없었다. 집안 사정도 급작스럽게 나빠졌고, 춘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여유로운 낭만 문학도였다. 아내 역시 글을 쓰고 기고하는 일을 젊은 시절부터 하여 문학에 대해 서로 잘 공감했다.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커피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바리스타 과정을 밟으며 커피의 매력에 푹 빠졌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숯으로 로스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숯으로 로스팅하며 맡는 구수한 커피 향에는 행복의 향이 더해진다.
이른 아침 부부는 함께 산책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풀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한다. 간단히 식사하고 카페에 와서 저녁까지 커피를 팔고 책을 읽고 글 쓰고 이야기도 나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행복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부부. 요즘 가장 행복한 것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일이다. 거기에 손님이 와서 커피 장사가 잘되면 정말 더 행복할 것이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8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로 본 조운동네, 4년의 여정과 미래를 전망하다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조운동네'는 요선동·새명동·옥천동·지하도상가를 중심으로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가 되었다. 총 5년 사업인 만큼 반환점을 돌아 서서히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조운소양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자발 · 배려 · 헌신 · 협동'이라는 춘천 정신을 지닌 대표 지역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조운소양 지역은 역사적으로 봉의산 주양성(走壤城)을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도심 배후지로 변화해 왔으니 줄잡아 1,500년 세월을 이어온 셈이다. 주양성은 신라 문무왕(文武王) 13년(673)에 쌓은 성으로 고려 1253년에는 몽골의 침입을 맞아 군관민이 결사 항전을 벌여 모두 희생됨으로써 고려인의 더 큰 희생을 막은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 결사 항전에 나섰던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재생사업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다. 3·1운동이 한창일 때 만세운동이 가열 차게 일어난 주요 무대도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지역이었다.

2023년 춘천마임축제와 조운동네

2023년 이제 코로나시대를 종식하며 비대면 세상에서 다시 대면 세상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5월 28일 춘천마임축제가 조운동네에서 개막되어 춘천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개막식에서 젊음이 넘쳐나는 아수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중년의 일탈 프로그램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어느새 시각에 반응하고 청각에 감동이 밀려왔다. 순간 '조운동네'도 이 축제 현장에 문화예술 공연으로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쳤다.

조운소양 도시재생 4년의 여정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사업은 2019년 선정 때

◆ **문화예술로 돌아본 2020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10월에는 우리 지역 내 맛집들이 발 빠르게 오프라인뿐 아니라 유튜브로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요선동, 옥천동, 지하도상가, 새명동 등 상권을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리 상인들이 프로그램 전면에 나서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 지역의 내로라하는 맛집 상인이 직접 출연해 가게와 주메뉴를 소개하고 주문까지 받는 '라이브쇼핑 쇼케이스'가 온라인을 통한 가능성과 깊은 인상을 남겼다.

◆ **문화예술로 돌아본 2021년**



2021년 월간 문화예술놀이 '조운플레잉' 사업이 코로나가 극성이던 시점에도 진행되어 조운동네 상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다. 공연, 예술체험, 음악회, 전시, 네트워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상가 안에서 체험하도록 구성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는 전시로 '이승우 사진전(10. 6~10. 15)'과 '전형근, 마을理 Project_대진리(10. 16~10. 31)', '全部多' 갤러리에서는 박정훈 사진작가의 개인전 '아이슬란드 사진전(10. 16~10. 31)'이 눈에 띄었다.

◆ **문화예술로 돌아본 2022년**

2022년 춘천마임축제와 협력하여 이루어낸 '조운동네 공연배달'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인이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었다. 물론 이 사업은 2021년 진행한 '조운플레잉' 사업의 버전을 높인 것이다.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 요선동 일대 상가와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연희극·마임·음악 놀이 체험 등이 보강되어 진행되었으며, 공연예술을 매개체로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예술 전시가 이어져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기해동행 – 봄내기해(己亥) 동행전(2. 1~2. 15)', '희로애락(喜怒哀樂: 9. 5~9. 13)' 등이 진행되었다.

◆ **문화예술로 돌아본 2023년**

2023년 '조운위크–봄'이 4월 22일~23일 춘천시청광장에서 공연, 체험, 마켓,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상상 아트 스쿨'이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마다 댄스, 보컬, 영상 수업을 진행하였다. 상상 언더그라운드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단체가 입주해 지역 상인과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부터 민·관·언론의 합작품으로 이루어낸 결과였기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상인회, 문화예술인과 그 단체가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복합문화공간인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이 최종 결과물이 될 것이며, 이 센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이 조성된다. 현재 진행형인 '상상언더그라운드' 사업과 투톱으로 시너지를 만든다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체험, 창작 등이 병행되어 젊음을 발산하고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로

이제 남은 기간 지하도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과 춘천 문화도시 진전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대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물을 기초로 하여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의 블루오션이 될 복합문화공간 '상상어울림센터'가 자리하게 되고, 앞으로 주민참여로 만들어질 조운소양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아갈 로드맵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사업과 행사는 참으로 다양하고도 많다. 더욱이 지극히 견디기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쌓아온 지혜는 자산이 되어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하다. 무덥고 긴 여름을 겪고 알찬 열매를 맺듯이 이러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시와 주민이 긴 호흡과 포용의 자세로 앞으로 남은 항로를 운항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7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3분기

7월에서 9월

* 전시 '예술물결展'
* 상상 그 이상의 댄스
* 상상 한 여름
* 전시 '동아시아 현대미술인展'
* 7월 월례회의
* 전시 '달과 육펜스, in 춘천'
* 《조운동네 좋은소식》 8호 발행
* 8월 월례회의
* 전시 '갖 사르다'
* 조운위크 여름
* 전시 '하나 작품 전시회'
* 전시 '언제나 새로운 시작'



전시
‘예술물결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아트플랫폼 공장의 단체전 ‘예술물결’ 전시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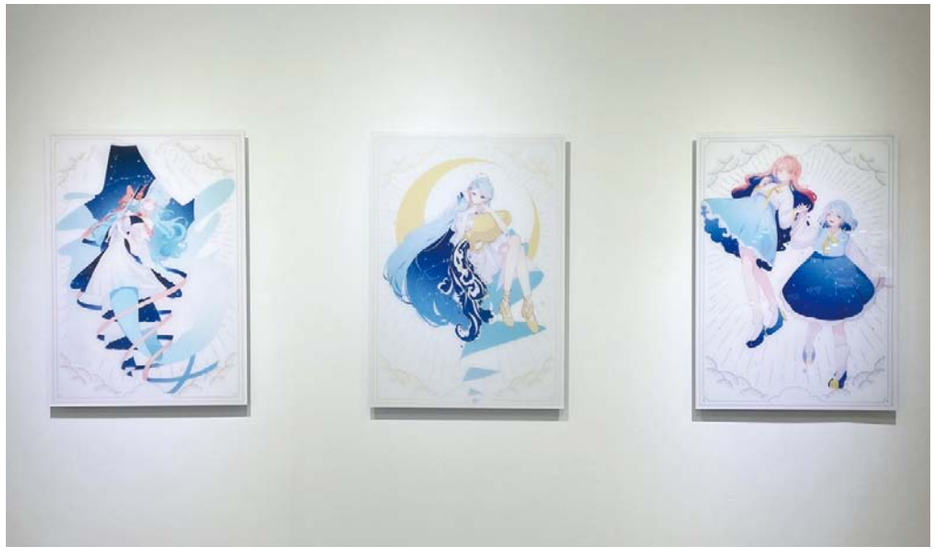
interview

성현아 공장 단체전으로 진행된 전시라고 알고 있는데, ‘아트플랫폼 공장’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트플랫폼 공장 ‘아트플랫폼 공장’은 지하도상가 남부로 마54-55호에 위치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공장은 장인 ‘공(工)’이 아닌 빌 ‘공(空)’에 마당 ‘장(場)’을 쓴 ‘빈 광장(Agora)’이라는 뜻으로 전문 예술인은 물론 예비 예술인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공장은 고정된 멤버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닌, 매번 프로젝트 및 단체전 별로 새롭게 인원을 모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동적 단체입니다. 춘천의 고인 예술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보고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의 단체전은 2023년 3월에 진행되었고 장르 구분 없이 예술가 17명이 모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술물결전’은 춘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두 번째 단체전으로 총 7명의 창작자가 참여했습니다.

성현아 ‘물’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게 된 기획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트플랫폼 공장 공장은 춘천의 새로운 예술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탄생한 열린 단체입니다. ‘똑같은’ 예술인들끼리 모여, 매번 ‘똑같은’ 작품으로 ‘똑같은’ 전시와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춘천의 고인 예술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춘천을 떠나는 젊은 예술가 모두가 동일하게 말했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춘천에는 너무나 멋진 예술가들이 많지만, 젊은 세대와 함께 새로움을 추구하는 멋진 단체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예술가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도, 함께 나눌 경험도, 소개해줄 인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



기에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춘천에 새로운 예술 물결을 만들자!'라는 '예술물결'이란 명칭을 정하고 '물'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과 맞기도 했고요.

성현아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한 작품들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트플랫폼 공장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전시를 원하는 이들을 모으고, 함께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제작하며 3개월을 보냈습니다.

성현아 앞으로 어떠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아트플랫폼 공장 공장의 목표는 전문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매력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7. 12. ~ 12. 2.

상상 그 이상의 댄스

매주 수요일 문화교육 '상상 그 이상의 댄스'가 진행되었다. 권역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이지댄스 등 안무 교육을 운영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발표회가 이루어졌다.







7. 15. ~ 8. 5.

상상 한 여름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 '상상 한 여름'이 진행되었다. 지하도상가에서 즐기는 피서로 전문 공연 및 주민 참여 무대,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인생네컷 포토 부스 등이 준비되었다.







7. 16. ~ 7. 30.

전시
'동아시아 현대미술인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동아시아예술인협력단의
단체전 '제2회 동아시아 현대미술인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작가님이 함께하던데,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나요?

전시 감독 협력단은 2017년부터 한·중·일을 오가며 작품 제작 능력과 전시 추진 능력 등을 두루 살펴서 선정된 작가들을 취합하여 탄생한 단체입니다. 이번 전시는 춘천 지역의 기획자와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기획된 특별 초청전입니다.

성현아 '동아시아 현대미술인전'을 위해 작품을 준비한 걸까요? 그렇다면 작업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전시 감독 대부분 작품은 이번 기획에 부합하는 작품들로 새로 제작한 작품과 기존 작품이 있습니다. 새로 제작된 작품 중에는 가장 짧은 제작 기간이 2주이며 가장 긴 제작 기간의 작품은 3년입니다.

성현아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시 감독 전시를 통해 '동아시아인의 사유방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양의 사유방식과 동양의 사유방식은 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시작점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현아 마지막으로 작가님들의 앞으로의 작품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시 감독 중국 작가인 'ZHOU'는 12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일본 작가 'YUZURU'는 12월 도쿄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GO KIHARA'는 후쿠오카(7~8월)와 도쿄에서(12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용선, 박대근 작가는 제주와 홍천, 서울 등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며 'KAMEKAWA' 작가는 8월 3일부터 8일까지 후쿠오카에서의 개인전과 12월 도쿄에서 전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7. 22.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7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조운위크 여름, 상상 한 여름, 상상 그 이상의 댄스,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조운동네 좋은소식》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8. 1. ~ 8. 15.

전시 ‘달과 육펜스, in 춘천’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황계 서영림 작가의 개인전 ‘달과 육펜스, in 춘천’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달과 6펜스》라는 고전 소설의 제목이 쓰였어요. 소설과 작가님의 개인전이 어떤 연관이 되어 사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서영림 달은 예술, 6펜스는 생계를 의미합니다. 예술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붓을 놓지 않고 예술에 정진하는 것.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예술(그림)도 같이 하는 저의 모습이 소설의 주인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현아 이번 전시회 작품은 개인전을 위해 제작한 걸까요? 전시를 준비한 기간을 알려주세요!

서영림 2018년도에 8회 개인전을 마무리한 이후 2019년도부터 약 5년간 준비한 작품들로 개인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현아 전시를 보면서 한국화의 매력에 대해 푹 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많은 장르 중 한국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영림 다른 장르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이 선택하게 된 이유 같아요. 또 한국화의 매력으로는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에요, 경제성도 있고요.

성현아 이번 전시를 보는 관객분들이 ‘이 점을 중점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서영림 기존의 한국화보다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어요. 한국화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화된 예술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으니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춘천의 여러 풍경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성현아 전시회 마무리 후 또 전시 계획이 있을까요?

서영림 9회 개인전을 잘 마무리한 후 10회 개인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5년 정도 개인전 준비하는 시간이 들어요. 양질의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8. 15.



《조운동네 좋은소식》8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8호를 발행하였다.







8. 16.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8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조운위크 여름, 상상 그 이상의 댄스, 주민공모사업,《조운동네 좋은소식》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8. 16. ~ 8. 27.

전시
'갖 사르다'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이미숙 작가의 개인전 '갖 사르다'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갖 사르다'라는 전시명에 담긴 의미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옛말로 가죽을 가리키는 '갖'에 '불사르다'라는 의미의 말을 합쳐 버닝화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현아 전시를 보러 갔을 때 가죽을 사용한 작품도 낯설었지만 버닝화라는 작업방식은 더욱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버닝화만의 매력을 소개해주세요!

이미숙 버닝화는 인두기로 태워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소재는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소재의 특성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매력이 있어요. 그중 가죽에 하는 버닝화는 다른 인두화보다 부드럽고 가죽 특유의 카멜색상으로 타기에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틀려도 지울 수 없는 그림이기에 작품에 대한 몰입도와 완성 후 느끼는 뿌듯함이 아무래도 두 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성현아 이번에 진행되는 개인전을 위해 제작한 작품일까요? 제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숙 네, 모두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그린 그림입니다. 가죽은 빛에 노출이 되면 태닝이 되기 때문에 그림의 선명도가 떨어지며 가죽 버닝은 가죽제품에 포인트로 그려 넣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의 핵심은 일부러 그림만을 액자화한 것입니다. 보통 그림 구상과 채색까지 3~5일, 대형그림은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성현아 개인적으로 눈을 사로잡은 건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시계였는데요, 실제로 시간이 간다는 점도 신기했고요! 어떻게 이러한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숙 '가죽타임'이란 제목으로 체험 준비를 하다가 타임은 시간, 시간은 시계를 나타내기에 이를 표현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거기에 가방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현아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이후 진행될 작품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미숙 체험을 통해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터라 전시보단 새로운 체험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8. 25. ~ 8. 26.



조운위크 여름

한여름 밤의 음악회 '조운위크 여름'이 진행되었다. 재즈, 현악 3중주, 칵테일 쇼 같은 감성 가득 공연과 타로, 무알콜 와인 시음 등 청년들의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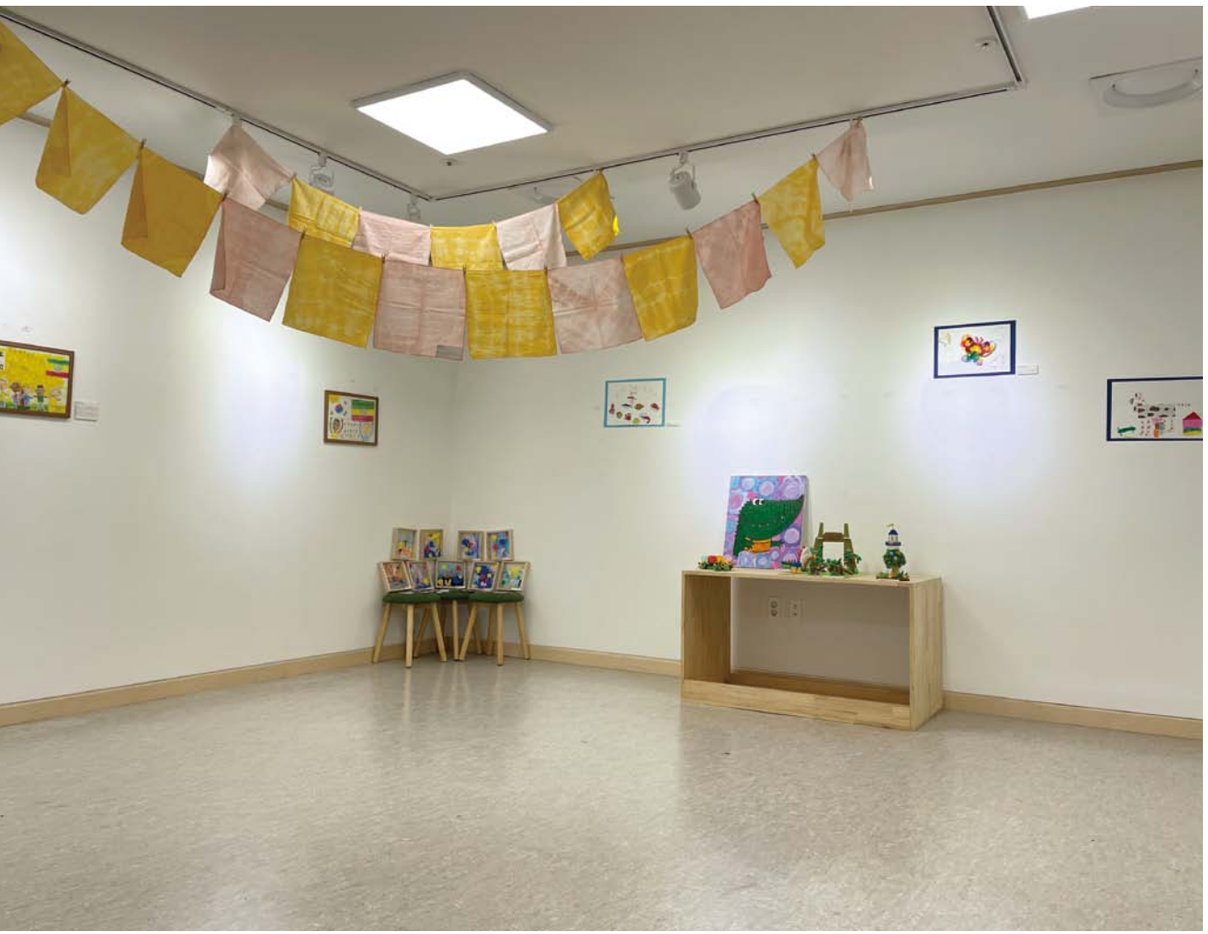




전시 ‘하나 작품 전시회’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하나어린이집의
‘하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안녕하세요! 갤러리를 보니 어린이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나어린이집 아이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고, 탐색하여 자신감과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만든 작품과 사진을 소개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장애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도모하여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하나어린이집’과 협력 기관을 언급해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환경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성현아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하였나요? 또 작품을 만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하나어린이집 ‘하나어린이집’에서 주최하였고, 3개 기관의 협력으로 총 39명의 아이들이 참가하였습니다(하나어린이집 27명, 푸름아동발달센터 4명, 우리말언어심리센터 3명, 두루바른언어심리임상센터 5명). 또 전시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획하였고, 작품활동은 하반기부터 진행하여 아동공동 작품 및 개별작품을 합하여 18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림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교구제작동아리인 ‘트러스트(TRST)’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도



보완대체의사소통인 AAC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 홍보해주었습니다.

성현아 이번 전시의 주제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어린이집 ‘우리, 하나’를 주제로 아이들의 작품과 사진을 전시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작품과 사진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다양한 감각과 시선을 느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의 다양한 기회들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해주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튼튼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현아 마지막으로 갤러리 상상언더라는 공간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을까요?

하나어린이집 춘천시에서 전시 가능한 공간들을 찾아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명동에 위치하여 전시장이 더욱 오픈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9. 16. ~ 9. 25.

전시 '언제나 새로운 시작'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최지영 작가의 개인전
'언제나 새로운 시작'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칠보공예 오브제를 함께 사용해 작품을 만드는 건 처음 접하지만 색다른 것 같아요. 칠보공예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지영 미대 졸업 후 교육 일을 10년 정도 하고 있을 즈음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해서 이것저것 배우던 중이었습니다. 두 달에 한두 번씩 다녔던 남대문의 지하상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칠보공예 원데이클래스' 문구를 보고 체험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한 칠보공예는 신기했지만 집에서 너무 멀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칠보공예가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빛이 너무 좋았고, 다른 공예들에 비해 가마에 넣으면 결과물이 3~5분 내외로 빨리 나온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화도 종이를 붙이고 말리고, 아교포수 후에 말리고, 배경을 칠하고 말리고 등의 기다림이 긴 그림 시간을 생각하면 결과물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흥미 있는 공예였습니다.

성현아 작가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생각하고 칠보공예 작품을 만들었나요? 혹은 그 반대였나요? 칠보공예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최지영 그림을 구상하면서 같이 합니다. 바다를 구상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했고, '춘천오봉도'만 해도 춘천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춘천의 요소들을 찾았고, 스케치도 같이 했습니다. 구상이 끝난 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화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말리는 시간에는 칠보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판은 톱질을 통해 원하는 모양을 잘라서 칠보유약을 올려 굽고, 크기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작품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실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현아 개인전을 준비한 기간과 작품 제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최지영 모든 작품은 올해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졸업 후 꾸준히 단체전은 진행해 왔고, 2019년 춘천으로 온 후에는 전





시를 기획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춘천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에 참여하며 쉬지 않고 전시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23년에는 꼭 개인전을 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전시장을 잡은 시점부터 더 세부적인 그림구상을 진행했습니다. 메인의 '춘천오봉도'는 두 달이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린 작품입니다. 구상했던 색들이 결과물로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엔 종이를 뜯고 새로 작업하길 여러 번. 그렇게 완성된 만큼 애정이 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단색으로 들어간 작품 또한 배경으로만 2~3주씩 걸릴 정도로 색 때문에 오래 걸렸지만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현아 작품들을 보니 배경은 한 톤으로 되어 있고 칠보공예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칠보공예 오브제에 눈이 가기도 하고요.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의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지영 '칠보공방 지니'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보공예'라는 생소할 수 있는 전통공예를 많은 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판에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되는 액세서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칠보공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판을 잘라서 작업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림과 칠보가 잘 어울리는



방법을 고민했고 너무 무거운 전시보다는 재미난 전시로 남고 싶었습니다.

성현아 이번 1회 개인전을 마무리 지은 후, 이번 연도 혹은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최지영 공방도 잘 꾸려나가야겠지만, 꾸준히 전시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전시하고 싶고, 다음 전시에는 조금 더 많은 칠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갤러리 상상언더' 장소가 생각보다 넓어서 칠보작업만으로는 큰 그림을 만들 수 없었기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전시 같은 재미있는 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방에서 가까워서 저는 갤러리 상상언더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전시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이번 전시에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민분들도 오셔서 너무 특이하다고 재미있다고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응원해주신만큼 더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춘객(春客)을 맞이하는
저희는 조운동네 여관입니다!



가장 춘천스러운
시공간이 펼쳐지는 게스트하우스

춘천일기

춘천시 중앙로27번길 9-1
0507-1380-7507



지금의 우리 주인이 춘천에 여행자로 놀러 왔는데 이 도시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졌대. 3개월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서울을 떠나 춘천에 눌러앉은 거지. 디자이너 출신답게 늙고 볼품없어진 나를 아주 이쁘게 바꾸어놓았지. 내가 83년생이니 꽤 나이가 있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동네에서 제일 키가 컸다고. 주변에 다 낮은 단층짜리 집들이 있었지. 맨 처음 여관이란 간판을 달았는데, 이름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고 게스트하우스로 형태도 바뀌고…. 춘천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더 춘천스럽게 느끼게 하는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어2층에는 미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아트스테이라는 특별한 숙박공간도 있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 한 번 만난 사람들은 또 오고, 또 오고, 누군가와 함께 오기도 하지. 어느 가수는 한 달 동안 나한테 머무르며 곡을 쓰고 또 그 곡들을 가지고 공연도 했지.

앞으로도 우리 공간은 춘천을 찾아오는 여행객에게 지금처럼 춘천 곳곳에 숨겨진 생활, 자연, 예술 공간을 알려주고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도 기획할 생각이야. 어때? 멋지지?



‘100% 좋아요’를 향해 달리는 새내기 숙박 주자

호텔야자

춘천시 중앙로27번길 9-5
033-244-4701



내 이름은 야자라고 해. 올 1월에 태어났어. 우리 동네의 나이 든 곳에 비하면 아주 어린 셈이지. 그러나 새내기답게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방도 여러 개 있어.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은 가족 단위도 많아. 레고랜드를 방문하려고 춘천에 들르는 어린이 동반 가족도 꽤 있어.

또 주말에는 춘천이나 근처 지역 군부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오시기도 해. 춘천시청 주변이라 관공서나 기업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젊은 여행객들도 많이 오지.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검색해서 예약하지.

기대하고 떠나온 여행과 숙박에 부응하려고 난 아주 예쁘고 깔끔하게 단장하지. 이렇게 노력해도 나를 찾아온 모두를 100%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가끔 신경 쓰여.

춘천은 관광도시라 나 같은 숙박 친구들이 많아. 어쩌면 우리가 서로 경쟁 상대일 수도 있지만 이불 세탁이나 교체 관리, 흡연 금지, 쾌적한 환경 유지 등을 서로 잘해서 ‘춘천에서는 어딜 가도 좋아’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타 지역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내 이름은 드라마모텔이야. 이름이 세련되었지? 그래도 나이는 열일곱 살이야. 춘천 번화가의 중심지였던 요선동의 터줏대감이지.

주인장은 고향이 이천인데 여기 춘천에서 45년 살았으니 이젠 춘천 사람이지.

주변에 잘나가던 친구 숙박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 그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춘천이 관광지로 유명해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잘되었지.

산도 있고 강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모두 다른 모습이니 자연경관이 멋있잖아. 그러니 외지에서 사람도 많이 왔고 숙박업도 아주 흥했지.

교통이 좋고 깔끔하고 친절한 나는 특히 인기가 좋았어. 가평에 놀러 와서도 춘천까지 택시 타고 와서 자려고들 했으니까. 굵직굵직한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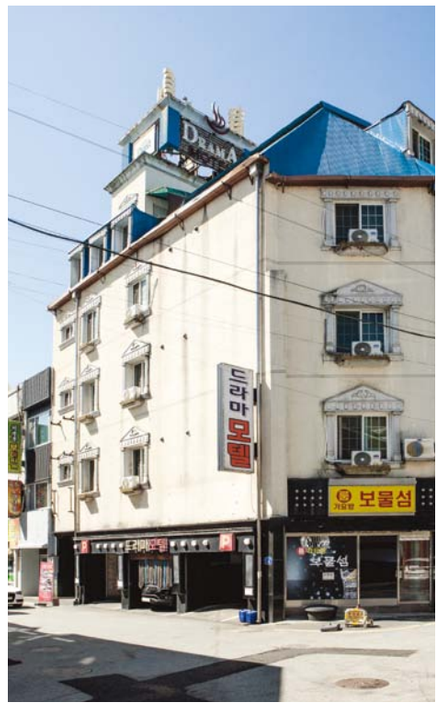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쇠락했어.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자기만의 분위기와 먹거리로 문을 여는 식당과 술집, 카페 등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골목도 살아날 테고, 찾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둘 늘면 내 이름처럼 드라마틱하게 내 인기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드라마틱한 인기 회복을 꿈꾸는 요선동 터줏대감

드라마모텔

춘천시 서부대성로44번길 16
033-244-6497



옛 여관의 대변신,
맛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어라운드마켓

춘천시 시청길12번길 17-1
033-243-4002





안녕~ 나는 어라운드마켓이야.

원래는 한밭장이라는 여관이었는데 1970년대에 지어졌지. 2층으로 13개 객실이 있었어. 하지만 7년여 넘게 비어 있던 것을 친구들이 모여 바꿔놓았어. 여관이었을 때의 공간 특성을 살려 독립성이 유지된 조금은 특별한 음식점으로 말이야. 손님과 종업원이 대면하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1층에서 주문하고 셀프로 음식을 가져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 그래서 소개팅하는 사람들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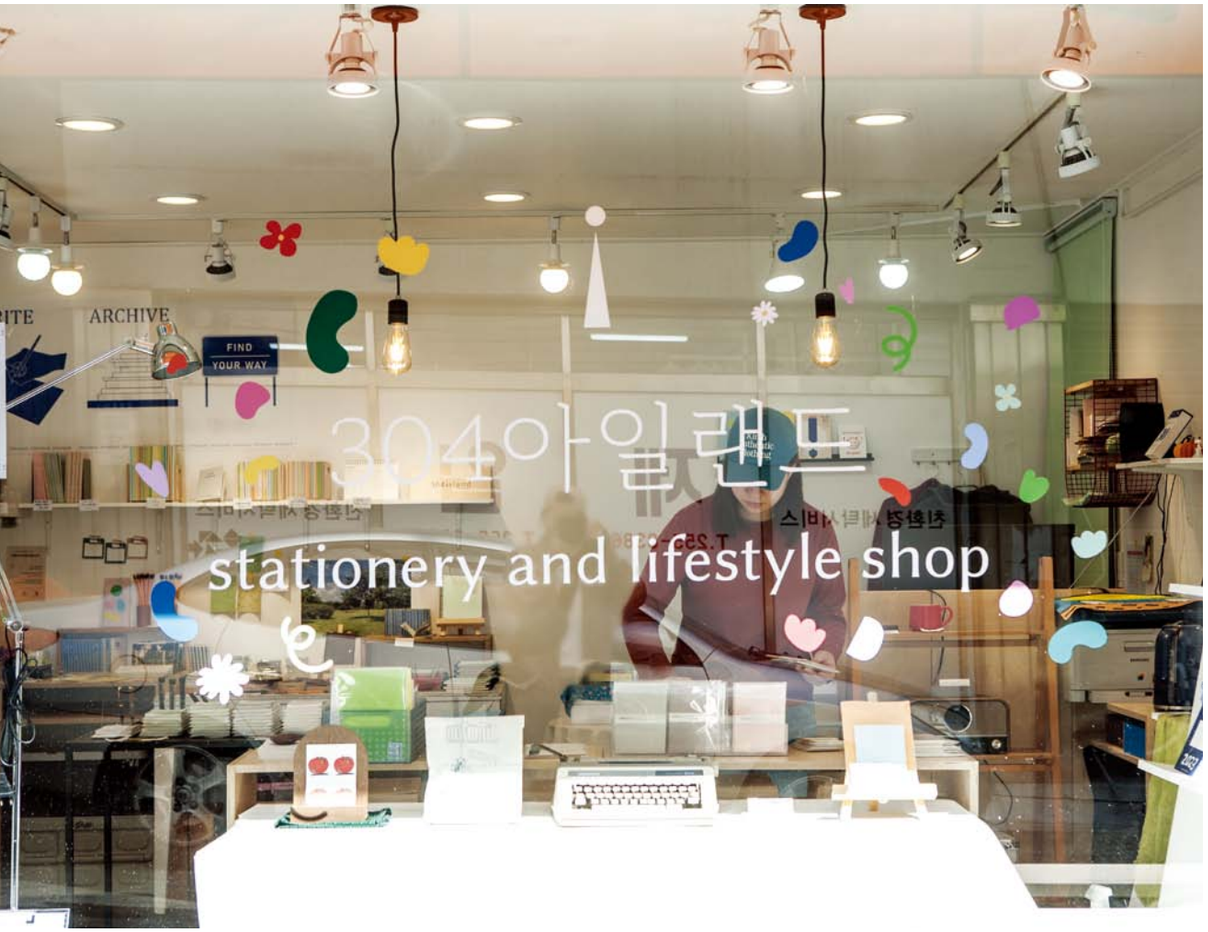
옛 여관건물을 이리저리 변경하고 유지해서 꽉 채우기보다는 비워두는 공간을 많이 두었더니 오히려 완성미가 높아졌다고 할까? 우리 동네 새명동에는 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

주차장이 부족하고 동네가 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아. 주변이 밝아지고 주차문제도 해결되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 거야.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5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춘천의 젊음과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조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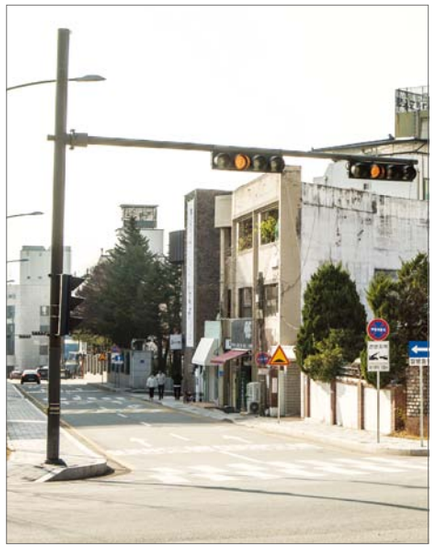


조운동네는 새명동, 요선동, 옥천동, 지하도상가를 잇는 춘천 제일의 젊음의 거리로 변화를 시도 중이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춘천의 정치, 경제(상권), 문화 변천과 도시화로 인한 주거, 여관, 식당, 극장, 유흥가 등 그 공간의 다양한 변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空間)이기도 하다.

조운동네는 일제강점기 춘천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1957년 옥천동에 춘천시청사가 신축되고 관공서 신축이 이어져 행정기관이 밀집하면서 그 배후지 역할이 증대하였다. 여기에 1960~70년대 초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 건설이 맞물리며 주거지, 여관, 식당, 다방, 유흥가가 곳곳에 들어섰고 금융 및 유관 사회기관과 행정지원 서비스 기관이 들어왔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이곳은 춘천 각 지역으로 나드는 교통 요지이자 문화 핵심지로 변모하였다. 춘천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갈비 골목이 형성되고 겨울연가로 한류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 명소로 변모하며 명실상부 춘천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자리 잡았다. 1999년 춘천 지하도상가가 탄생하고 2000년대 들어 문화기획사가 주변에 하나둘 자리 잡으며 조운동네는 정치, 경제(상권),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960~80년대 문화예술의 레트로 요선길

조선시대에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객사인 요선당(邀仙堂)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찍이 시장이 들어섰다. 이 시장을 따라 상점과 주점이 늘어서면서 춘천 상권이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다. 1960~70년대 춘천댐, 의암댐, 소양댐이 건설되며 요선동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는데, 이때 요선시장은 중앙시장을 능가하는 최대 서민시장으로 활력이 넘쳐났다. 여기에 요선동길을 따라 필방과 음식점, 여관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며 1960~70년대 춘천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부상하여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화 커뮤니티 공간 옥천길

춘천 문화예술을 지켜보고 이끄는 춘천미술관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면, 구춘천문화원 건물을 마주하고 카페와 책방이 들어서 있다. 근대 등록문화 유산인 (舊)춘천문화원은 2000년대 들어 춘천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춘천문화원 건너편에는 예전 '바라'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기도 했던 문화 커뮤니티 공간 '올훼의 땅'이 있다. 이곳은 전문 DJ가 레코드판을 틀어주며 해설을 하고 작은 연주회와 공연이 수시로 열리는 레트로 문화가 넘쳐나는 젊음의 공간이다. 2021년 세워진 공유책방 '본책'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 지역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얹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

젊음과 낭만의 새명동길

춘천에는 명동이 두 곳이 있는데, 명동과 새명동이 그것이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접한 대학의 젊은이와 관공서 근무자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 지금은 주점, 레코드 가게, 디스코장, 순대국밥, 분식집, 카페, 닭갈비집, 옷가게 등을 갖추고 육림고개 상가와 청춘과 낭만이 넘쳐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명동은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만남의 광장









으로 재탄생한 지하도상가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청춘과 낭만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춘천 도심의 최대 휴식 공간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만남의 광장은 초록색 카펫이 넓게 깔린 휴게 공간으로 가족 단위나 젊은 층 방문이 많은 곳 중 하나다. LED 조명과 벽화는 인기 높은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고, 광장에는 관엽식물로 조경하여 쾌적한 분위기에 편의시설을 갖춘 '상상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상상공원' 좌석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자동 가습기 등이 있고, 곳곳에 텔레비전을 설치해 시내버스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유책방'이 있어서 일상 속 독서도 가능한 도심 속 휴식 공간이다. 지하도상가에서는 합창단과 서커스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청소년 참여 예술교육이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미디어 장비와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해 명실상부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300여 개에 달하는 점포가 운영되는 지하도상가에서는 액세서리, 신종 스마트폰, 의류 등을 판매해 젊은이들의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일번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젊음과 낭만을 문화예술로 이어가는 조운동네 조운길

젊음과 문화예술로 대표하는 조운동네 조운길은 1960 ~80년대 문화예술의 레트로 요선길로 시작하여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진 옥천길을 지나 젊음과 낭만이 넘쳐나는 새명동길로 이어지다 휴식 공간인 지하도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종료된다.

조운동네 조운길에 젊음과 낭만이란 상징을 문화로 덧입히려면 조운동네와 근처에 입주하고 있는 문화기획사 등과 협업하여 해마다 진행하는 춘천마임축제 내지 춘천인형극제 등과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문화 커뮤니티를 연계하여 각종 축제의 센터로 활용한다거나 지하도상가에 지역 축제 프로그램을 소형 무대로 꾸며 항시 공연예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조운길에 있는 전시공간이나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시각예술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6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4분기

10월에서 12월

* 전시 '신승복 묵필 산수화전'
*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
* 《조운동네 좋은소식》9호 발행
* 전시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
* 10월 월례회의
* 조운위크 가을
* 전시 '사인전(思人展)'
* 전시 '제9회 예림회전'
* 전시 '권순복 민화 개인전'
* 공실 모집
* 《조운동네 좋은소식》10호 발행
* 상상 한 겨울
* 12월 월례회의

10. 1. ~ 10. 15.

전시
‘신승복 묵필 산수화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신승복 작가의 개인전
‘신승복 묵필 산수화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풍경화로 전시장을 채운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 담고 싶었던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신승복 멋진 풍광을 산수화로 담으면서 특별한 내용의 주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미학적 공부이기보다는 가식처럼 느끼기도 하고 순간순간의 급한 성격과 안이한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린 산수화를 보면 여러 자연스러운 생각, 풍경이 던져주는 성찰과 위로의 힘, 화가의 태도가 보여주는 가치, 필과 묵의 맛만 가지고도 감동이 일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성현아 작품을 둘러보니 흑과 백만이 작품에 사용된 것 같아요. 색을 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신승복 수묵산수화에서 수묵은 흑백그림이라는 현란한 색과의 대비개념이 아니고, 모든 색을 함유하는 아우름의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은 먹색은 묵맛, 필맛, 물맛 등으로 변화를 얘기할 때 무한가능하므로 색채를 배제하는 것 이전에 먹의 공부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현아 작품들은 전부 이번에 진행되는 개인전을 위해서 제작하였까요? 개인전을 준비한 기간과 작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신승복 이번 전시에 사실 욕심이 컸었습니다. 전지(40호) 그림 20점 이상으로 벽면을 가득 채워 산수화의 묵필 맛, 개성을 만끽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게으름에 차일피일, 결국 평소 소소하게 그려두었던 소품 20점과 임박해서 서둘러 대작 3점, 소품 몇 점을 추가해 선보이게 되어 전시 내내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전시를 마무리 지으며 새롭고 신나는 전시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산수화의 제작 기간은 짧아요. 소품은 몇 시간, 대작은 일주일, 한 달, 몇 달도 걸려요. 화가에게 작품 제작 시간은 간단히 말하기 애매해요. 그렇게 표현되기까지 오랜 수련의 시간이 있었으며 시간과 걸작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현아 많은 장르 중 한국화(산수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승복 저고2 때 즈음 선배에게 한글서예를 시작하면서 필묵을 만났어요. 유년 시절부터 글씨를 잘 쓴다는 칭찬이 있었기에 ‘서예가’를 꿈꾸었는데요. 전시장에 다니다 보니 ‘우후취정’이라는 산수화를 보고 내가 시골에서 보았던 풍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겠다는 매력에 빠져 평생 그려야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어요. C 선생을 만나 필묵의 기초를 닦고 강릉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어요. 졸업 후 J 선생을 만나 결혼하며 산수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게 되었어요. 또 평생 업으로 근대 산수화가들이 이룩했던 세계를 나도 보여주겠다고 J 선생과 약속했지요. 그 향기를 위해 일념매진하고 있어요.

성현아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활동 계획이나 목표를 알려주세요.

신승복 큰 틀에서는 나의 산수화 작품세계를 멋지게 갖추는 것, 걸작의 모습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와 타인이 큰 감동 받을 수 있는 산수화 대작 100여 점을 남기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0. 4.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

2024년도 갤러리 상상언더 대관 모집을 시작하였다. 대관비는 무료이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10. 15.





《조운동네 좋은소식》9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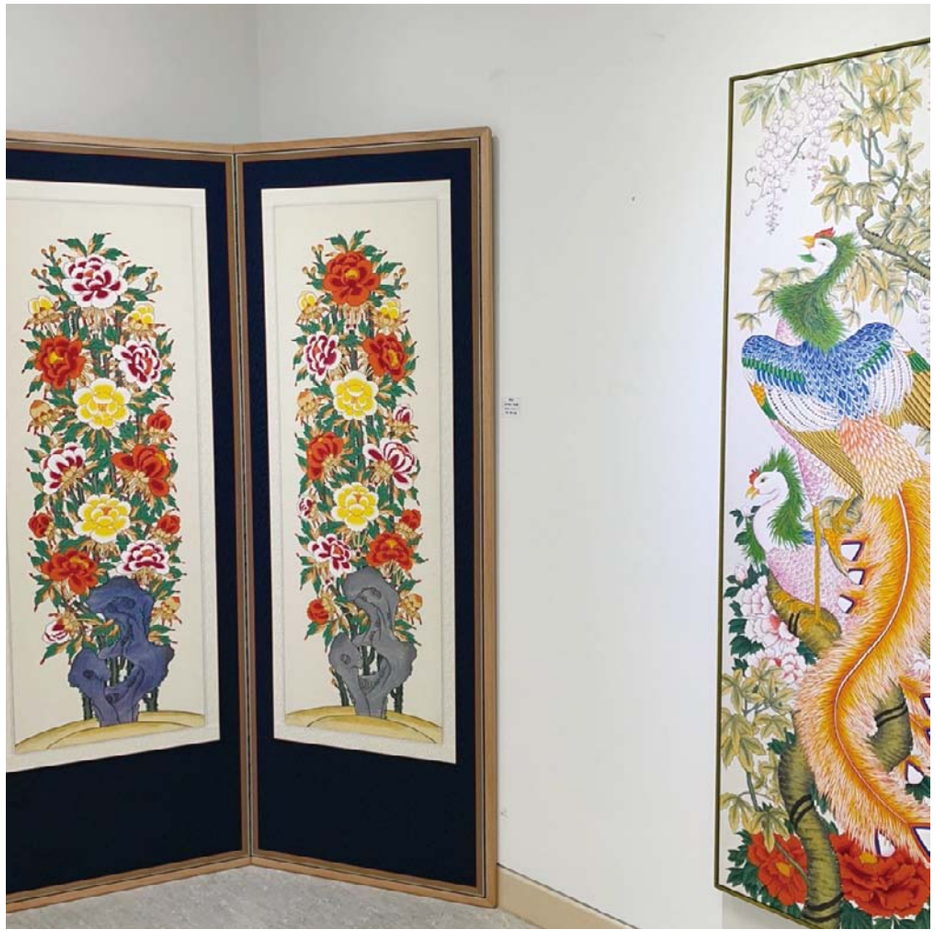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9호를 발행하였다.

10. 16. ~ 10. 31.

전시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소양상미회의 단체전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인데요. 먼저 ‘소양상미회’ 단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양상미회 대표 궁중장식화를 전수하신 권매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사연과 계기로 모이게 된 단체예요.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회원은 약 15명 정도랍니다. 소양은 춘천을 의미하고, 상미(尙美)는 아름다움을 높이 알리다, 드높이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성현아 전시 주제가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 2’이더라구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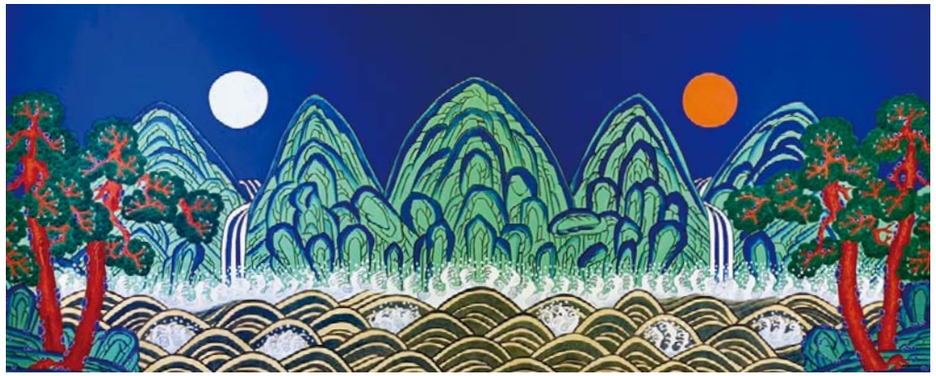
소양상미회 대표 먼저 소양상미회는 저희 단체명이기도 하고요, 전년도에 창립전 모토기도 했어요. 또 올해 2회전이라 의미를 담아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와 우리 민화의 기본 사상은 ‘길상’입니다. 희망과 기원과 소원은 언제나 아름다운 높은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현아 이번 단체전에 출품한 작품들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양상미회 대표 길게는 2년을 준비한 분도 있고, 짧게는 5개월이 소요된 새내기 회원도 있습니다

성현아 전시를 보며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민화만의 매력을 설명한다면요?

소양상미회 대표 민화란 우리 민족이 그린 모든 그림을 말합니다. 궁중장식화에서 무속화, 불화까지 모두를 말하지요.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 만세에 이르는 건강을 바라는 마음 등 왕족, 양반, 서민들의 생활상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왔고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신들의 세계에



도전하기도 한 우리 선조들의 그림이 하나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 같아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21세기죠. 현대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민화를 그립니다. 아파트, 자동차, 현대의 뉴스거리 등. 단, 민화의 기본 '길상'은 배제되어선 안 되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지금의 민화를 보고 우리의 시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성현아 소양상미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소양상미회 대표 바쁜 일상,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취미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껴요. '나도 그린다, 당신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느낌과 변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0. 17.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0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조운위크 가을, 틈새콘서트 시즌2, 상상 한 겨울, 갤러리 상상언더 정기대관 모집, 상상 그 이상의 댄스,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10. 21. ~ 10. 22.





조운위크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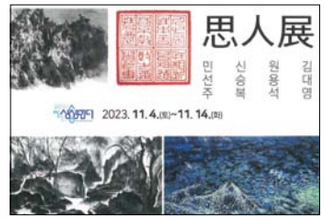
도시재생 페스타 '조운위크 가을'이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사업 홍보관 및 체험, 지역 상인 플리마켓, 디자인 컨설팅, 공연, SNS 이벤트 등으로 구성한 가을 축제가 완성되었다.



11. 4. ~ 11. 14.

전시
'사인전(思人展)'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민선주, 신승복, 원용석, 김대영 작가의 단체전 '사인전(思人展)'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전시명이 '사인전(思人展)'인데요. 처음에는 4명의 작가님이 함께하는 전시인 줄 알았답니다. 다시 보니 한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전시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복 '사인전(思人展)'을 말 그대로 풀면 '사람을 생각하는 전시회'입니다. 네 작가의 생각이 모두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들이 호흡하고 생활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사고라는 데서 일치점을 가지고 있어 그 내용도 모두 자연에 넘쳐나는 넝쿨들의 순환과 흙과 돌과 바위의 호연지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흙과 돌과 바위는 모두 사실 흙이며 그것들은 흙의 또 다른 순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현아 의미는 다르지만 4명의 작가님이 함





께 하는데요, 함께 준비하게 된 과정을 알려주세요.

신승복 네 명의 작가는 각각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아크릴을 주로 사용하는 김대영 작가, 먹을 주로 사용하는 수묵화이지만 신승복 작가는 산 전체를 모태로 하고, 민선주 작가는 부분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원용석 작가의 전각은 빨강과 먹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채색과 수묵의 중간에 전각이 있지요. 산수와 자연과 인위를 합하는 과정에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아 '사인전(思人展)'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작가님마다 무엇을 주로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김대영 주로 캔버스에 아크릴을 사용해 점묘의 기법으로 자연의 순환과 마음의 흐름을 드러내려 합니다. 특히 물과 그 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호흡들은 김대영 화가가 근자에 추구하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신승복 과거보다는 확실히 산세에서 여백이 많이 강조되는 경향입니다. 산들은 실제의 산이 작가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며, 여백은 눈일 수도, 구름이나 안개일 수 있으며 사실은 사색의 여백일 수도 있습니다. 감상자에게 작가의 여백을 채우게 하는 기법의 활용입니다.

민선주 이번에 보여주는 것들은 강렬한 터치와 강한 먹을 통해서 자연이나 풍경이 장중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은 볼수록 깊으며, 물(구름, 안개)은 그 사이에 깊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치 새벽에 사물들이 서서히 드러나듯이 산과 바위와 그 사이를 채우는 모든 것들이 신비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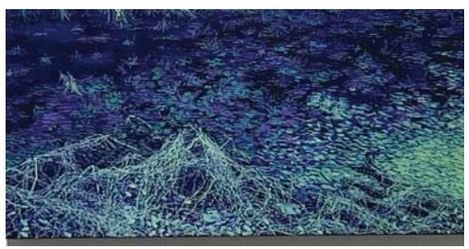
원용석 전각은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 예술입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가지는 사상과 감정의 문제를 선질과 장법 그리고 문자에 회화성을 부여하여 드러냅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전각의 기법뿐만 아니라 서예, 캘리그라피, 회화 등의 모든 장르가 동원되며 그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성현아 관람객이 중점적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부분거나 메시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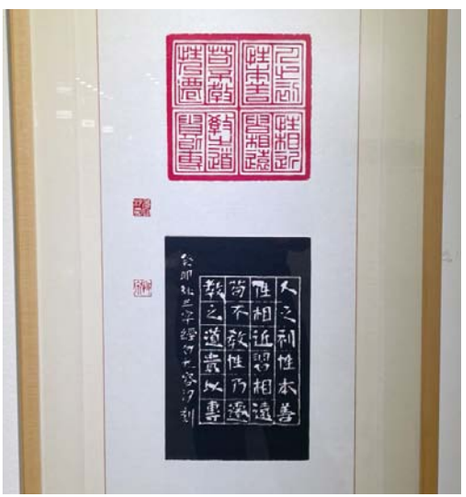
신승복 풍경화나 산수화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좀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여 경치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림 속에 자신을 넣어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가가 의도한 자연의 순환이나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각도 같은 맥락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한 선질과 글자의 조합이 내용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생각하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떨어져서 작품 전체를 조망하고 세밀한 곳을 주목하는 것이 감상의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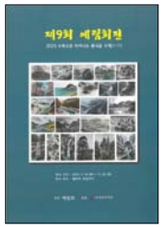






전시 '제9회 예림회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예림회의 단체전 '제9회 예림회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제9회 '예림회'전인데요. 먼저 예림회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예림회'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도 궁금합니다!

이승호 예림회는 황계 서영림 선생이 춘천의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한국화 관련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강생들과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5년도에 창립되어 올해로 9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관련 동호회입니다. 회원 대부분은 퇴직자, 자영업 종사자, 주부 등이며, 현재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림회는 한자로 藝林會를 쓰는데,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아 전시장을 정말 빼곡하게 작품으로 채운 전시회인데요. 그만큼 많은 작가분이 함께 하고 준비하신 거겠죠? 작가님마다 다를 것 같지만, 이번 전시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요!

이승호 이번 전시회에서는 예림회 회원 24명이 47점의 산수화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전시장 규모에 비해 조금 많은 수의 작품이지만, 회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라 선별하여 전시하기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 수가 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작품을 전시할지 몰라요. (웃음)

유명 작가들도 한 작품을 완성하려면 몇 달 혹은 몇 년씩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회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배운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몇 번의 습작을 거쳐서 한 달 정도면 작품 하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현아 이번 전시에서 담고 싶었던 혹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승호 전시회의 주제가 '수묵으로 피어나는 봄내골 사계(四季)'인데요. 호반의 도시 춘천은 호수와 산과 들판이 어우러져 있어서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봄에는 들판에서 피어나는 아지랑이 사이로 온갖 꽃들의 잔치가, 여름에는 산과 호수에 흩어지는 안개 속으로, 가을에는 온갖 홍엽으로, 겨울에는 나뭇가지마다 피어나는 상고대로 한 폭의 수묵화가 저절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춘천에서 사는 작가들의 다양한 느낌과 경험을 작품에 담아보려 했습니다.

성현아 매년 단체전을 꾸준히 진행하는게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7회, 8회, 9회는 이곳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진행하였는데요. 갤러리 상상언더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이승호 갤러리 상상언더가 예림회의 전시 공간으로는 안성맞춤이에요. 내년에도 이곳에서 전시할 예정인데, 벌써 사용승인서를 받았지요.(웃음) 갤러리 상상언더만의 매력이라면



우선 예림회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예림회에서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가깝게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전시장의 위치가 지하도상가에 있어서 상가에서 일을 보고 지나가다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람객 수도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사실 춘천미술관이라든가 춘천문화예술회관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성현아 이번 전시회를 마무리한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승호 우선 예림회 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예림회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였던 상설 전람회장 운영, 춘천시민 대상 무료 부채그리기 체험행사, 야외 스케치 행사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 행사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10회 예림회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회원들께서는 '10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에 걸맞은 행사를 계획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림회원들이 한국화 그리기를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예술적 자아성취감이 한층 증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예림회 활동이 춘천 시민과 더불어 전통문화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예술인과 춘천 시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전시
'권순복 민화 개인전'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권순복 작가의 개인전 '권순복 민화 개인전' 전시가 진행되었다.





interview

성현아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번 전시의 주제가 '아름다운 행복의 산책'이에요! 작품과 함께 설명해주세요.

권순복 민화를 그리면서 색채의 화사함에 마음이 많이 밝아지고 행복했습니다.
색의 고움과 아름다움을 행복한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여유롭게 감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성현아 개인적으로 민화 전시회는 처음이에요. 전시장을 둘러보니 색감도 다양하고 눈에 익은 작품도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민화만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권순복 민화는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색감의 화사함이 마음을 굉장히 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답니다.

성현아 많은 미술 장르 중 민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순복 민화는 기본 본이 있어서 밑그림을 본뜨고 색채를 입히는 작업이라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방색의 화사함에 이끌렸습니다. 7년 전 우연히 접한 민화의 아름다운 세계가 손에서 작품을 놓지 못하게 해 지속하게 되었네요

성현아 전시 작품이 많아요.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한 건가요?

권순복 전시 작품 중 '화조도가리개'는 2023년 1월에 본을 뜨고 10월에 마무리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니 작품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아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계획을 알려주세요!

권순복 처음 민화를 그리면서의 감동과 아름다움이 제게 행복을 안겨주었듯이 2024년에도 더욱 마음을 울리고 행복이 넘치는 색을 찾아 민화를 보는 이의 마음을 행복으로 감동시키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의 창작 활동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조운동네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oundongne



12. 11. ~ 12. 27.

공실 모집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잔여 공실에 대한 입주단체(인)를 모집하였다.

12. 15.





《조운동네 좋은소식》10호 발행

조운소양 도시재생 권역(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의 이야기를 담은 조운동네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10호를 발행하였다.

12. 18. ~ 12. 28.







상상 한 겨울

크리스마스 문화행사 '상상 한 겨울'이 진행되었다. 지하도상가에서 즐기는 연말로 전문 공연 및 주민 참여 무대, 만들기 체험, 기획 전시, 스탬프 투어, 인생네컷 포토 부스 등이 준비되었다.



12. 20.

월례회의

조운소양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1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시즌2, 상상한 겨울, 공실 입주단체 모집, 상상 그 이상의 댄스 결과발표회, 《조운동네 좋은소식》 관련 안건이 상정되었다.



조운동네의 오랜 친구들 이야기

역시, 인생엔 친구가 있어야지!

오랜 세월과 함께
익어온 우정을 나누는 요선동 친구들!

새거리번영회(이강수, 김남우, 정보만, 한만수)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꺼워지는 옷만큼이나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 것 같다. 겨울에 유독 쓸쓸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노릇. 이럴 때 맘 통하는 친구와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나 차를 나누면 그런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특히나 서로 공유하는 추억이나 생활이 많다면 마음의 온도는 쑥 올라간다. 요선동 거리에서 수십년 우정을 지켜온 친구들과 지하도상가에서 끈끈한 만남을 이어가는 친구들의 겨울은 그래서 춥지만 따뜻하다.

젊은 시절, 그들의 요선동 거리는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활어처럼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아침나절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시장통을 바삐 왔다 갔다 하며 먹을거리를 사고 옷이나 신발, 가방도 구경하고, 퇴근길에는 술 한잔 기울이기도 했다. 또 열심히 일하던 젊은 청춘도 많았다.

이강수, 김남우를 비롯한 친구들 역시 활기왕성한 나이에 요선동에서 만나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꾸리며 노년에 들어선 지금까지 만남의 연을 이어왔다.

세월의 흐름은 요선동 거리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꾸리고 살아온 사람들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모두 현역에서 은퇴하고 여가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매주 한 번씩은 요선동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난다.

예전에는 모두 젊었으니 여름마다 한 번씩은 계곡에 나가 발도 담그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서로의 가게에 들러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엔 술잔 기울이며 떠들고 웃으면서 하루의 고되고 힘든 일을 함께 씻어버리곤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함께한 시간만큼



이강수(새거리번영회 간사)



김남우(새거리번영회 회장)



정보만(새거리번영회 부회장)



한만수(새거리번영회 총무)

서로 가족 이야기를 묻기도 한다. 첫 아이 탄생의 기쁨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한다.

지금도 이들의 대화에는 요선동이 단골로 등장한다. 도시락 천 개 주문도 완벽하게 납품하여 신뢰를 얻었던 음식점 사장의 이야기나 하루 매출로 직원들 월급을 주었다는 구두점 사장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처럼 들린다. 요선동의 화려한 시절로 복귀하기를 꿈꾸며, 그 옛날처럼 골목골목이 북적북적 살아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낡은 건물의 위험성이나 주차 문제 등 현재 요선동의 문제점을 걱정한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가번영회 활동을 하며 가능한 한 많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

최근 요선동에는 젊은 청년 점주들이 개성 있는 가게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고, 요선동 청년회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뒤를 이어 요선동을 잘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





자매처럼 마음이 척척 맞는 지하도상가 친구

권미영(지하도상가 중앙로 나-01호, 노엘)
임연복(지하도상가 중앙로 나-06호, 히어로)

지하도상가의 아침은 넉넉한 커피 인심으로 향기롭게 출발한다. 이웃하고 있는 상가 주인장들끼리 밤새 닫혀 있던 가게 문을 열고 나면 조회라도 하는 모양으로 삼삼오오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눈다.

유난히 사이가 좋아 자매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지하도상가의 '찐' 친구인 권미영, 임연복 씨다. 그야말로 서울 패션의 1번지였던 동대문 밀레오레에서 오래 의류사업을 하다 지난겨울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새롭게 시작한 '히어로'의 임연복 씨. 서울보다 낯설어진 고향의 새 일터에서 반갑게 손을 건네준 이가 '노엘'의 권미영 씨다. 서로 성격이 좋다고 칭찬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음악이다. 임영웅의 노래를 둘 다 정말 좋아하기에 더 말이 잘 통했는지도 모른다. 노래 이야기도 하고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다 이젠 정말 친구가 되었다.

"성격이 좋아요. 여럿이 모이면 서로를 잘 화합하게 해주고, 성격이 말랑말랑해요." "언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라고 둘은 말한다.

매출이 줄어 의기소침할 때 서로를 기운 나게 해주고, 손님 때문에 맘이 상하면 넘어진 상처에 호~ 하고 불어주는 엄마처럼 격하게 동감해준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맛있는 반찬의 비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지하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전에는 각자 일을 하고, 오후 무료한 시간이 오면 실컷 웃고 떠들며 기분전환을 한다.

앞집, 옆집이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먹고사는 중요한 문제니 가끔은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빵이나 사탕 등 간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떤다. "분수대 주위로 삼삼오오 모였던 아이들, 패션의 거리를 오르내리며 옷, 신발, 액세서리를 고르던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언니~ 커피 한잔할래?" "그래, 좋지~"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타임이다. 힘들어도, 커피 한잔에 서로를 생각해주는 '정' 한 스푼이 추가되니 둘이 함께하는 커피 맛은 진짜 끝내준다.

인터뷰 및 글_ **조성미**(시민기자)
소식지《조운동네 좋은소식》10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운동네 거점공간 ‘상상어울림센터’ 건립에 즈음하여



도시재생에서 거점시설이란

도시재생은 장기적인 사업이자 프로그램을 통한 보존과 변화를 지속으로 이어가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까닭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원도심이 쇠퇴하고 지역 간 불균형 개발로 발생하는 지역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 힘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찾아내 공동체가 지속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다.

도시재생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점시설을 구축하기 마련이다. 이 거점시설은 재생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생사업 종료 후 미래를 잇는 통합문화공간이자 사업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설계부터 목적과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중요하다. 여기에 거점시설의 건축미까지 고려해 도시의 상징물이자 확실한 지역자산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재생사업 거점시설은 통상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주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거점시설 설계에 반영하고 해당 부서에서 시설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주요 사안이다. 이 두 가지를 반영해 이에 따라 운영할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채울 수 있다.

미리 보는 ‘상상어울림센터’

거점시설 가운데 구역별로 설립한 재생센터는 재생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중추를 담당할 공간이다. 조운소양재생사업도 2024년에 사업을 종료하며 거점시설의 완성체인 ‘상상어울림센터’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상상어울림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 허브 시설이고 도서관 기능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기존의 일반 도서관 기능을 넘어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실험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서관으로 조성된다.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혁신적 도서관 특성을 견지하며 평생교육 서비스로 도심 문화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평생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창작공간(메이커스페이스)과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조성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복합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춘천 어느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직 교육 서비스를 하지 않는 쿠킹클래스(요리반), 공유공방 등을 운영하며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상어울림센터 착공
춘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상상어울림센터가 착공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공유 공방, 포토 스튜디오,
쿠킹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
어르신 배움터 등 시민들이 모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원도심의
핵심 역할을 든든히 맡아줄
상상어울림센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가 좋은 사례

청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춘천보다 이른 시기에 시행하였고, 2018년 7월 13일 도시재생의 연결고리이자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상 2층 규모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를 준공하였다.

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에는 지역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와 공예품 판매 부스가 들어서 있고, 조합은 주차장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조합 도시재생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도시재생허브센터 1층의 대공연장(어반아트홀)과 공연연습장, 2층의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은 공익성을 띠고 활동하는 단체에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다. 이로써 대공연장과 공연연습장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문화예술 단체와 동아리가 마음껏 연습하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게 되었고, 2층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은 사회 전반의 소통 통로가 되었다.

도시재생허브센터 옆 청소년광장 소나무길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해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관계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심은 활력을 찾고 있다. 이는 선순환 상생 구조에 센터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상상어울림센터' 건립에 바란다

조운소양재생사업은 종합적 결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상상어울림센터' 건립 방향과 그곳에 채워지는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립 방향을 정하고 콘텐츠를 구성할 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설계된 '상상어울림센터'의 주요 특징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서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복합문화공간 구성이다.

개방적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도서관이 주민이나 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이 실질적 도움이 될지 선뜻 예측되지 않는다. 센터에 채워질 콘텐츠는 설계 단계로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호소통이 절실하며 이 점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주민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짓는 문화공간인 만큼 모쪼록 시민에게 필요한 콘텐츠에 관한 연구와 소통을 활발히 하길 기대한다.

글_ **허준구**(춘천학연구소장)
소식지 《조운동네 좋은소식》 6호에 소개한 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이야기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3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활동자료집 2023

https://blog.naver.com/joundongne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joundongne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